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역사세계에 사용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를 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나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나라 (잠언 16장 3, 3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8호 2012년 11월 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2대선변수, 복음주의자 신앙함수?

미 언론, 초읽기 미대선 의미와 종교함수 역학관계 조명

사상 유례 없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드디어 수 일 앞으로 다가왔다. 6일을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들 선거인단이 실제 대통령을 뽑는 날은 12월 17일이다. 그러나 선거인단 선출 결과가 사실상 후보 득표율과 마찬가지로 이날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결국 8곳의 경합주 표심과 두 후보 간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정책노선에 따라 이 치열한 접전의 최종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미국 대선에서 소위 "신앙함수" 즉 복음주의자들의 투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동성결혼과 낙태 반대는 성경적 가치를 천명하는 보수, 복음주의의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정책들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만큼 복음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신앙 함수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미 언론은 2012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 대선의 의미와 신앙 함수의 역학 관계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2012 대선은 한마디로 '열차락 뒤 치락'이 계속되는 유례없는 초 접전이다. 미국 대선에서 이처럼 초 접전을 벌인 대통령 선거가 과거에도 없었다. 대체로 지지율에서는 롬니가, 선거인단 수에서는 오바마가 우세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상이다.

특히 과거 미국 역사에서 7.2%가 넘는 실업률로 재선된 대통령이 없었다. 현재 7.8%가 넘는 실업률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프리미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기관 지지율을 취합해 매일 평균치를 공개하는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 달 26일 집계한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에서 롬니는 47.8%를 기록해 47.1%인 오바마를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1주일 전 만해도 3%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차이가 다시 좁혀지는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공동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롬니와 오바마 지지율은 이를 전 3%포인트에서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줄었다.

더구나 최종 득표와 직접 관련되는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오바마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오바마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2012 미대선에서 동성애와 낙태 등이 주요 신앙함수가 되고 있다.

281명으로, 257명에 그친 롬니를 앞서 당선을 위한 마지막 선인 2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후보가 열고 오바마에게 전국 득표수에서 뒤지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등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네 차례 이 같은 일

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결국 경합주(스윙 스테이트) 표심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8곳의 경합주는 아이다호, 오하이오, 위스콘신, 버지니아, 뉴햄프셔, 네바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와 롬니 후보 모두 시간과 돈을 이들 지역에 쏟아 붓고 있다. 또 오바마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주 후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조기투표를 행사했고 롬니도 유권자들에게 조기투표를 권유하는 등 두 후보 모두 남은 시간을 경합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텃밭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8곳의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18명이 걸린 오하이오 주는 두 후보들에게 1순위 공략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하이오를 잃고도 대통령이 된 경우는 지난 1960년 존 F. 케네디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1964년 대선 이후로는 오하이오 주의 승자가 예외 없이 백악관의 주인이 됐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다. 이번에도 오바마가 오하이오에서 패한다면, 롬니가 앞서있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를 빼앗지 못한다면 패배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오하이오에서 승리할 경우 7곳의 경합주에 걸린 선거인단 77명 가운데 15명만 차지하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롬니 역시 오하이오를 빼앗기면 오바마가 앞선 경합주 4곳 가운데 2-3곳에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겸손하게 자아발견

리더십저널, 소그룹 공동체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원리 소개

교인들에게 은혜란 명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감명이나 감동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택"(Theological and Cultural Thinkers, TACK)의 일원인 빌 스톨과 브루스 맥니콜은 이런 은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은혜는 공동체다

그들이 먼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용어 이상의 것이라 주장한다. 은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수단 이상이며 우리의 성숙과 공동의 삶을 위한 토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은혜라는 환경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은혜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런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한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은혜의 공동체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그분의 평가에,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토록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야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그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다. 은혜의 신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의 토대를 바꾸어 줄 세계관과 인간의 타락과 이로 인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제공한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며 죄를 지어 좌절감에 빠지기보다는 '죄를 짓는 의로운 성도로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매력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 받은 바 된 본분을 다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맞출 수 없는 은혜를 맞출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갖는 공동체,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에 은혜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해보자.



2면

또다른 출애굽...롬트기독교인 이집트 떠나



3면

유례없는 진보-보수 노선 대결



7면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I)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16면

특별 기고: 2012년 미국의 대선과 의미 새라김 사모(TVNEXT.org 대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의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과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 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깊고 푸른 바다로 뛰어내리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낮선 곳에서의 아침”을 쓴 구본형 씨의 글에 보면 유조선을 타고 가다가 불이 나서 갑판에서 타죽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갑판에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극히 적은 살아남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바다 속에 뛰어내릴 것인가의 질문 앞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결론을 짓는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었다. 교회에 처음 부임하여 보니 중고등부에 학생이 단 한 명뿐이었다. 아이가 한 명뿐이

니 당연히 담당교사도, 교역자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열악했다. 그때 어떤 교인이 다가와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주변의 큰 교회에 보내주자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임목사로서는 부적절하게도 “그렇다면 두 번째 아이가 오면 또 큰 교회로 보낼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여 반박하였다. 그리고는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 절치부심하였다. 그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명이 수십 명에 이르는 부서로 성장하였다. 예배당을 옮길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 옛 예배당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에서 우리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배당 구입이 실패한 상황이었다. 리얼터는 더 이상 알아볼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팔았다가 잘못하면 거리로 나오아야 할 판이었다. 그러자 예배당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시에서 우리의 건물을 사겠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기회처럼 보였다. 시에서는 시한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 매각의사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그 최종시한을 두어 시간 남겨놓고 당회는 갑론을박 끝에 매각을 결정했다.

안전하게 모든 미래가 확실하 보일 때 우리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안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동안 성도들이 열정으로 기도하고 매달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길 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의 심정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인 비리새를 메고 먼저 발을 강물에 담그는 마음이었다. 그 순간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매각은 성사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구입할 새 예배당이 나타났다. 또한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시에 건물을 매각한 것이어서 시에서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으니 새 예배당에 갈 때까지 현재의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지나 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위기의 순간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지만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제 곧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가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총파에 속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도 동성애를 지지하여 국민들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고 싶은 마음도 없다. 목회자인 나 자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의 답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선거일은 다가오고 최악의 선택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니 무조건 투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누군가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허락되지 않으니 소극적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의 불확신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표를 찍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까지 밀리면서 투표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이번 선거는 복음적 그리스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인 것 같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세상에 떠밀려가는 한국교회처럼, 미국의 교회들과 한인교회들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채 휘둘리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이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찍어야 한다. 그러면서 외신상담,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의 싸움은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질 듯하다. 그럴지라도 유조선 갑판 위에서 실낱같은 가능성을 향하여 깊고 푸른 두려운 바다로 뛰어내려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도전해야 한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서!

또다른 출애굽... 콥트기독교인 이집트 떠나

월스트리트저널, 이집트 이슬람주의자 집권과 박해로 고향 등지는 콥트 보도

미국의 콥트(Copt)정교회 교회는 매일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콥트 기독교의 본산지인 이집트를 떠나는 콥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든 고향과 가족, 친지를 등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출애굽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슬림형제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집권 정당이 다수인 무슬림들의 테러나 린치 심지어는 폭탄 테러까지도 절대적 소수인 콥트 크리스천들에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온 청교도들처럼 현재 이집트에서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한다(The Christian Exodus From Egypt: For Copts, a persecuting dictator was preferable to the Islamist mob).

이집트 역사에서 콥트 기독교인의 탈출 행렬은 전에도 있었다. 지난 1950년대 나세르(Gamal Abdel Nasser)가 혁명을 일으킨 이후 이집트에서 민족주의화가 진행되고 이슬람 운동이 확산되자 많은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 당시 이슬람 운동으로 무슬림 두건을 쓴 여성들이 많아지자 두건을 쓰지 않은 콥트 기독교 여성들의 존재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학교와 거리에서 콥트 여성들을 향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이 늘어났다.

1980년대 무바라크(Hosni Mubarak)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이슬람 운동을 진압하

이 돼왔고, 경찰은 종종 무슬림 편에서 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반정부혁명이 일어났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이 혁명에 열광적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박해를 받지만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이슬람주의자들보다 독재정권이 그들에게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재자는 혁명으로 물러났고, 연이은 의회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승리했다.

혁명으로 치안이 부재한 틈에 이슬람화를 주장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거리를 메웠다. 이슬람주의자들은 말로는 화해를 외치고



독교인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특히 재력과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욱 이집트 탈출 행렬에 가담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는 이들은 이집트에 남아 있는 행국이 돼가고 있다.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다. 이

성직자와 교구 지도자 등 신자 대표 2천400여명은 선거에서 2명의 주교와 3명의 수도사로 구성된 후보 가운데 한 명에게 표를 던진 다.

이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은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이 다음 달 4일 카이로의 세인트 마크 성당에

미국유입 증가...이슬람주의자들, 화해 외치면서 추방조치 매년 15억 달러 원조하는 미국, 콥트기독교인 보호 주장

면서, 콥트 기독교인들의 삶은 나아졌다. 무바라크 자신은 콥트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경찰과 사법부는 이집트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공동체를 의식해서 콥트 기독교인을 공격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무바라크는 직접 개입해 교회 건축을 허가하거나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일을 단행하기도 했다.

무바라크 정권 아래에서 소수 종교 단체인 콥트 기독교의 교인들은 정부의 고위직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공기업의 최고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다. 2005년까지 콥트 교회는 새 교회를 건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허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가 안보기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이나 수리를 금지하곤 했다. 또한 무바라크 정권 치하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은 종종 무슬림의 모함과 폭력의 대상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기독교인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콥트 기독교인의 요구와 고통을 무시했다. 2012년 1월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인근의 한 마을에서 콥트 기독교인의 주택과 상업이 약탈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슬람주의자 정치인들과 무슬림들은 화해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약탈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콥트 기독교인을 마을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는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지만 이집트에서는 소수 종교 단체(전체 인구의 10%)로 국가의 미래는커녕 자신들의 미래도 결정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지역적으로 함께 모여 살면서 안전지대를 형성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와 이슬람주의자들의 정권 탈취 이후 콥트 기독교인을 향한 적대감이 더욱 증가하면서 많은 콥트 기

러한 이유로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집트 정부에게 콥트 기독교인들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새 헌법의 제정을 중단하고, 소수 종교 단체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마련하며, 종교적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고 설교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집트 콥트교의 교황을 새로 뽑는 선거가 29일 열렸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서 콥트교 교황으로 최종 결정된다. 다득표 후보 세 명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은 뒤 눈을 가린 어린이가 이 가운데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교황이 결정된다.

새 교황은 콥트교 제118대 교황으로 같은 달 18일 즉위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전 교황은 1971년 즉위해 40년간 콥트교를 이끈 세누다 3세로 지난 3월 17일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유례없는 진보-보수 노선 대결

미 언론, 2012미대선 인물 평가 아닌 '정책 선택' 비교분석 보도

2012년 대통령 선거는 2013년 1월에 취임하게 되는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2012년 11월 6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과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항하는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출마하여 박빙의 승부,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경제정책 대결이 전면에 대두되고 있다. 바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경제정책에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양극화 된 노선이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미 언론은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민정책 등 각 방면에서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조세와 재정정책은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분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 침체로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의 인기가 떨어지자 도전자인 롬니가 확실한 차별화 정책으

보수주의 입장에서, 오바마와 롬니 간의 인물 평가나 지지 대신, 정책 비교를 해주고 있다. 특히 낙태, 동성결혼 그리고 동성애자 권리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진보주의 진영의 소저너스(the Sojourners) 역시 양당 후보 중 특정

경합주 8곳 표심 잡아라!

미 언론, 초임기 미대선 의미와 종교합수 역학관계 조명

(1면에서 계속)

민주, 공화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상 두 정당을 대표하는 오바마와 롬니 후보의 정책노선도 분명하게 갈린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책 대결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두 후보의 정책 공약도 남은 일 주일간 부동층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정책 노선에서 복음주의 진영은 물론이고 인인 롬니 후보와 연대를 하고 있다.

복음주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롬니를 적극 지지하지 않지만, 롬니 대신 오바마에 도전할 만한 다른 후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특히 올 대선의 최대 현안은 경제 문제인데, 경제를 잘 아는 후보는 롬니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론교인인 롬니와 복음주의자와의 연대 고리는 “동성애자 결혼 반대”와 “

실망을 표명했다. 바로 “이단인 몰몬의 성장 돕는 격”, “성경 아닌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보수 성향의 교단 중 하나인 남침례교(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장 리처드 랜드 목사는 일찍이 롬니 후보 지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즉 “기독교인 유권자가 롬니 지지사의 이슈들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고 그의 유능함을 신뢰한다면 다른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될 유능한 기독교인에 투표해야 할 적당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며 롬니 후보의 신앙이 정치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2012미 대선주자 롬니(왼쪽)와 오바마 대통령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올해 대선에서 복음주의 교인들이 비복음주의 교인들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39% 대 38%)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부 지출과 부채 감소’

오바마, 재임기간 경제침체 계속 VS. 롬니, 확실한 차별화로 승부

석한다.

오바마와 롬니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큰 정부론을 앞세워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중시하는 반면,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는 연방예산지출을 GDP의 22.5% 범위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롬니는 연방예산을 매년 5000억 달러씩 감축하고 연방예산지출도 GDP의 20%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 분야에선 오바마가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헬스케어법(일명 오바마케어)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롬니는 “당선되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슷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다. 클린턴은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을 제정했다.

로 승부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혜를 입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다 보니 지지층도 확실하게 나뉘게 되고 공약 대결이 첨예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오바마 재임 기간 중 실업률은 43개월 연속 8%를 넘었다. 지난 1960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실업률이 7.2%를 넘는 상태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시민운동의 약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수 진영에선 티파티(Tea party) 운동, 진보 쪽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개의 운동은 이념적으로 완전 대척적이며, 이들이 풀뿌리운동으로 대두하면서 이념적으로 중간지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테이(CT)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투표 안내를 보도한다(Your Guide to Christian Voting Guides: Which flyer should you take with you into the voting booth?).

신앙인들을 위한 투표 안내서 역시 노선에 따라 핵심 정책들을 설명해준다. 먼저 복음주의 진영(Faith & Family Coalition, American Values, Family Research Council)은 사회적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떠한 프로필도 소개하지 않고, 정책의 차이만을 소개한다. 그 이유는 하나인 민주당, 공화당은 노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즉 성경에 천명된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후보에게 같이 하신다고 설명한다.

가장 흥미로운 투표 안내서는 바로 미국가정협회(the American Family Association)에서 만든 것이다. 동 협회는 철저하게 보수적 노선으로,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보수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쟁점에 대해서, 동 안내서는 양당 후보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데, 가령 낙태나 동성결혼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F(fail)점을, 반면에 롬니 후보는 B+를 주고 있다. 또한 동 안내서는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보수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상하원 후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까지 돼 있을 정도이다.

결국 이번 대선은 양당 간 정책 차이가 확연하게 갈리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선택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성결혼과 낙태 반대가 결정적 이슈

실제대선 12월17일 불구 6일 선거인단 선출로 결정

낙태반대” 등 가치 체계의 동일함이다. 특히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플로리다, 오하이오 이른바 ‘경합주’에 보수 성향의 복음주의 교회가 강하다는 점에서, D-7을 앞둔 대선 이 또 다시 신앙합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음주의 진영의 거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물론교인인 롬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을 존중하는 후보가 바로 롬니라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맥락이다.

롬니 후보를 공개 지지한 빌리 그레함 목사는 교계의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롬니 후보를 만나고 나서, 그레함 목사는 웹사이트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성경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종교자유를 수호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성경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나와 함께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가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연합(The Billy Graham Evangelical Association) 웹사이트에서 “몰몬은 이단”이라는 내용의 글이 삭제된 이후 나온 것으로, 더욱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모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롬니에 대한 공개 지지

라고 꼽고 있다는 점 역시 롬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롬니 후보는 자신의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정부 재정 운영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만든다는 점을 캠페인 메시지 내내 강조해왔다.

또한 복음주의 교인들은 비복음주의 교인들보다 더 (34% 대 29%), 무엇보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음주의 교인들 다수인 21%는 그 점에 있어서 롬니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꼽았다.

결론으로, 이렇듯 복음주의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롬니를 선택할지, 아니면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할지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롬니는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종교의 자유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나의 종교나 집단,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음주의자의 지지를 호소한다.

미국 국민은 2008년 대선에서 흑인인 오바마를 선택함으로써 새 역사를 만들었다. 만약 몰몬교 신자인 롬니가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미국 대선과 종교의 합수관계가 어떤 해답을 도출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ISA(연방정부부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MIN501 Theological Seminar 1(신학개론 1)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MIN 531 Ministry & Cultural Diversity(목회와 문화의 다양성)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마키아벨리

역사상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가 쓴 책 '군주론'처럼 찬반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없다. 그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한 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교우가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경시시켜주었다. 그는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14킬로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가르초(Garcho)에서 태어났다. 집 주위로 포도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허름한 농가 이층집이었다. 특히 피렌체는 제정 로마시대부터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었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곳 어딘가에 네로 황제의 포도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스폴아츨 살에 피렌체공화국 서기로 등원하여 마흔네 살까지 일했다. 공화정이 무너지자 추방당했던 매디치 가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거지에서 해임되자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다시 복직할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군주론을 집필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를 유명인이 되게 한 군주론은 매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한다면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자 과거의 철인들과 정치가들을 분석하며 군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로 갈거리 찢어져있었고 한없이 무력하기만 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안방 드나들듯 쳐들어와 이태리 도시들을 점령하여 다스렸다. 그는 위대한 조국 건설에 힘이 되고 싶었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군주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 안 되고 때로는 악인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자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

하고, 폭군적인 전제군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조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목적을 향해 때로는 무자비한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과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는 강력한 군주의 예로 한니بال의 비인도적 잔인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를 물리친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는 부하들에게 지나친 온정주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부하병사들은 스페인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로마 군대를 부패한 한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명예롭지 못한 탄핵을 받아야 했음을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군주는 사람 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로, 사람은 은혜를 입을 때는 목숨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을 바치지만 위험이

닥치게 되면 금방 등을 돌리게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느끼는 자를 훨씬 쉽게 배반한다고 보았다. 우리도 70년대 지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반대가 극심했고, 야당 지도자는 포클레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반대 앞에 절대적 지도력을 가지고 밀어붙였고 그것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말한 군주는 국가의 재정을 비축하여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예비하고 강한 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도모해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오늘날 정치나, 교회 지도자들도 깊이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푸/ 른/ 초/ 장

김선만 목사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감사하기 어려운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어려운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깃들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신 것입니다.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눈, 두 귀, 두 다리, 코, 등 다른 데는 다 괜찮았습니다. 또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마음과 말할 수 있는 입 등을 생각하니 잃은 것보다 잃지 않은 것과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일상의 감사(요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11절).

해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안드레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양식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양식을 건네받으신 후에 사람들을 풀밭에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한 다음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11절). "축사하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축사하다'는 동사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마26:27).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 것 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음

습 쉬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3. 위기 중에 감사(마26:26) 본문 26절과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날 밤에 열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장면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의 저녁 만찬 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시고"와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한 헬라어 동사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두 동사 모두 부정과거 분사인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감사한 것이 지금도 감사한 상태라고 하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시장은 가장 흉악한 수백 명의 사형수들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모형을 찾아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다빈치는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 가룟 유다를 그려서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가룟 유다 모델의 사형수가 다빈치에게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용서를 구하더라 합니다. 정말 모른다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제가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예수의 모델로 그린 사람입니다"라고 하더라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감사와 불감사가 결국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까.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일에 감사할 수 있고,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위기와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것 없는 사람이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당장에 감사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엔 더디 나타나지만 일단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평정심과 소망이 깃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위대의 시발점은 일상의 감사요, 고난의 위기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때 기적도 일어나고, 감사하실 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마태복음 11:25-26

1.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감사(마11:25) 본문 25절의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20절 이하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23절). 최선을 다 하셨지만 성과 없이 일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그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두 팔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소연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 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거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그는 잃지 않은 것과 얻은

러나 잃는다 해도 그 잃은 것보다 더 높은 것,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롬8:18). 실패하고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죄를 회개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

벧새다 벌판에서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여 주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6:5).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요6:6). 양식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도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것을 보십니다. 이때 계산에 밝은 빌립은 대략 살펴보고 일인당 최소한의 떡을 나누어준다고

식을 불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윽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오히려 남은 것을 열두 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축복으로 나타났고,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경에서 살아나고, 실패한 자리에서 재기하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신분과 위치가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희생의 피로 죄를 용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잃은 것보다 잃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깨닫고

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사하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하고, 작은 일로 감사하였는데 큰일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였는데 병들어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였는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감사한 사람이 위기 중에도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로마교황청이 1491년 당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하여 그린 벽화였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장 7년 동안 그려 완성했더군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의 실제 모델을 찾아그리는 데만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만 남았습니다.

11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기도성회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저녁) ~ 30일(목, 저녁)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석기도원(안양·광혜·LA)담임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KWMA 운영이사
홍익대학교(Th.M/Th.D, candy)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28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설교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축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전환이 있습니다. 색신자들은 몇 년의 살림이 알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권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도 하나님은 삼아게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GALMELSAN MIJU GALMELSAN PRAYER CENTER
Tel: (818) 306-4912 www.galmelsan.or.kr
담임목사 | 조성근
부목사 | 황건영 | 전도사 | 김성희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8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자녀교육 특히 주일학교교육의 전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교육공무원을 특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나 선생님들은 과연 교육전문가인가?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교육 보다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신학공부를 마친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일학교교육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모른다는 것은 아이들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교육부 사역자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는 젊은 분들로서 영어를 잘 한다는 것과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과 아이들과 세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 분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아이들을 맡겨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는 또는 장년부 사역자들보다는 또는 담임목사님보다는 아이들과 언어적인 측면에나 문

의는 거의 없습니다. 혹은 번이라도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면 반작용으로 다시는 그곳에 접근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취학기가 되면 지적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학습흥미가 잘 안 된 아이에게는 공부라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 가는 일이 병행해야 하는데 이

고 하지 말고 뒤에서 물고 가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티칭 스킬(Teaching Skill)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유년부 시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적인 동작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의 영

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일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인들 중에서 현직 전직 교사들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작아 인적자원이 없다면 현재 학교선생님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있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계신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 영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교육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교육활동 즉 프로그램 구성과 예배흐름과 분반공부와 기타 활동들에 대하여 기획하고 편성하여 전도사님과 협력해 전문적인 교육을 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지요. 문화적인 차이도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잔소리처럼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이 고안되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어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계되어진 시스템의 부재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 결국 그들은 마

주일학교 시스템의 전문화 위해 인프라 구축 각 연령별 교육법과 커리큘럼 따라 교육해야

화적인 측면에서 아이들과 더 가까울 수 있고 더 소통이 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최종한 말씀이지만 교육은 먼저 배운 사람이 수학문제를 풀어주고 영어어휘력을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일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어나 한글 또는 수학을 배우러 주일학교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처럼 방언이나 은사 등 신비한 체험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각 연령에 따라 인지능력도 다르고 사고활동의 영역도 다릅니다. 어린 유아기 때는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이 더욱 더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나 애착은 별로 없으며 오래 가지 않아 대상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유치부는 활동의 반경이 커지면서 시야도 넓어져 갑니다. 그러나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주

야기식 공부만으로는 기초적 단순학습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학교교육의 시스템과 교육기술이 발달한 미국의 환경에서는 학교교육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일학교교육 시스템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하여 커리큘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체험주의 교육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 자신들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있어 아이들 스스로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을 설정해야 살아 있는 교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담당자나 교사가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각적인 활동이나 지적인 활동은 물론 영적인 활동까지도 지도자가 의도한 대로 역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Curriculum에 의해 학습지도안을 설정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합니다. 마치 소를 물고 갈 때 앞에서 고삐를 잡아 당겨 끌고 가려

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아무런 숙제도 없고 준비도 없이 몸만 가서 앉아 있는 '봉숭아학당'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습활동을 위한 준비물과 리서치 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학습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야 주일학교 교육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초등부 시기에는 훈련과 봉사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 중심의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터득해가야 합니다. 즉 공동체 의식이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의식을 갖게 해야 교회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세계관에 맞추어 시야를 더 넓히고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육에 반드시 전문성을 투입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크게 둘로 나누어 첫째는 전문교육자를 기용하는 것이요, 둘째는 전문 교육자에 의해 교육 시스템과 교육방법의 개발과 커리큘럼을 세우

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향하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

다. 우리 한인이민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주일학교가 살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일학교 시스템을 전문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별로 전담 교육전문가를 디렉터로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전도사님 사례와 교육 디렉터 사례를 이중으로 어떻게 사례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무엇이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을 짓는 일이나 장년목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주일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지 참으로 안타가울 뿐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경험히 여기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오전15:29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세례 받는다는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산 사람이 기도하면 이미 죽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하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 사원을 건축할 때 막대한 돈을 사죄권을 팔아서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칼슨에서 김경태 장로 올림

A: 이 성경구절은 성경학자들 의견이 분분해 성경의 난해구절 중에도 최고로 해석에 어려움을 던져주는 구절입니다. 신앙주의자인 찰스 하지는 바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소위 이단인 게린투스 파(Cerinthian)와 마르시온 파(Marcionites)들에 의해 실행됐던 다양한 세례관습이 고린도에 이미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종파 사이에서는 세례예비자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죽는 경우, 죽은 세례예비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등록되고 세례성례의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산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반대자들은 세례의 속성과 효력에 대해 잘못된 견해에 근거한 미신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는 그의 고린도 전서주석에서 산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받는 대리적(代理的)세례는 이단에 속하는 것이라며, 사도바울이 이것을 인정하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이단, 죽은 후엔 구원기회 없어

듯이 관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미신적 관습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활이 없다면 왜 이단인 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겠느냐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닌가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란 헬라어 휘페르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over)란 장소적인 개념과 '대신에'라는 대행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무덤위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부였던 크리소스톰(Chrysostom)의 기록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세례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를 침상 같은 곳에 눕혀놓고 그 아래 산자가 들어가 눕습니다. 셋째, 칼빈과 다른 사람들은 여기의 죽은 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곧 임종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세례를 시행해야 되겠는가? 저 역시 이것에 대한 바른 해석은 자신이 없습니다.

셋째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해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이며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본인이 받아야 죽은 후에는 남이 대행해 줄 수 없으며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톨릭이 성베드로 사원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해 퇴철회라는 말 잘하는 수사학자를 동원해 사람들에게 "저 연옥에서 고통하는 부모님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 땡그렁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형제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가톨릭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서부의 디어필드시에 위치한 참길장로교회에서는 목회적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교회로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 자격요건**
 1.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2.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목사 또는 가임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3. 조직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
 4.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1부
 2. 신앙고백서 1부
 3.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목사안수 증명서 1부
 5. 목회 비전서(목회 철학 포함) 1부
 6. 목사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경기) 1부
 7. 자기소개서 1부
 8. 최근 설교 자료 2편(오디오 또는 동영상: 1편은 반드시 동영상일 것)

접수마감 2012년 12월 28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이메일 : trueway3117@gmail.com (허광영 장로/ 청빙위원장)
우 편 : TRUE WAY PRESBYTERIAN CHURCH(담임목사 청빙위원장)
445 PINE ST., DEERFIELD, IL 60015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제출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탐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장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에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가대를 이끌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락처: 예배위원장 원훈수 장로 (Tel. 8130960-4949)
담회사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탐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년째
복음화
전도
전진
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8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팔렘방(PALEMBANGESE)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따라 3천마일 정도의 길이로 폭넓은 1만3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군도이다.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민족국가들 중 하나이다. 6백개의 각 부족들 중

의 하나인 팔렘방족들은 팔렘방지역 원주민들의 후손들이다. 팔렘방족들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직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왕조와 자바족들의 후손이라는 증거들은 있다. 팔렘방족에 관한 전문가이면서 스스로가 왕족인 한 저명인사는 오래 전 무시(Musi) 강 유역을 따라 생겨난 멜팅팟(melting pot-인종 문화 등 여러 다른 요소가 융합 동화되어 있는 장소) 현상의 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팔렘방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수

세기에 걸쳐 아랍인, 아시아 인도인, 중국인, 자바인 그리고 다른 인도네시아의 종족들이 하나의 무리로 섞여 팔렘방을 이루었다.

삶의 모습 팔렘방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섬의 무시(Musi) 강둑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총1백2십만의 도시 인구 중 팔렘방족이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팔렘방은 두 개의 종족, 왕 제루(Wong Jeroo)와 왕 자보(Wong Jabo)로 나뉘어진다. 왕 제루는 팔렘방을 중심으로 했던 고대 왕국들의 소 영웅들과 귀족들의 후손이다. 왕 자보(Wong Jabo)는 일반인들이다. 공무원이 많으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맨, 공장노동자, 어부, 육체노동자, 교육자, 그리고 수공업업자로서 일을 하기도 한다. 팔렘방은 매우 복잡한 산업지역

이며 통신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런 도시적 부(富)는 원유(原油)와 정제유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역으로부터 취해진 많은 양의 기름으로 수익을 얻은 인도네시아 정부 석유회사는 텔레비전방송국, 스포츠스타디움, 시계탑 그리고 주요 모스크들을 위한 고상한 기둥들을 건축해왔다.

리마스(limas: 피라미드) 양식의 집은 팔렘방 건축의 가장 독특한 양식이다. 지붕은 꼭대기로부터 큰 프런트가 개방식으로 된 방 위로 부드럽게 경사지며 내려온다. 다른 스타일의 집들뿐 아니라 많은 리마스 양식의 집들은 갖은 홍수로 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상식 가옥(기둥위에 집을 세운 형태:역자주)으로 세워졌다. 많은 팔렘방족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그랬 듯 여전히 무시(Musi)강 위에서 살

아가고 있다. 팔렘방 족은 가부장제로 남자들이 선호한다. 아내의 책임은 집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을 지킴으로 남편이 "나의 집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친가 부 석유회사는 텔레비전방송국, 스포츠스타디움, 시계탑 그리고 주요 모스크들을 위한 고상한 기둥들을 건축해왔다.

신앙 거의 모든 팔렘방이 무슬림이다.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전통도 존중한다. 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전통도 가까이 두면서 이슬람법은 더욱 존경심으로 지킨다(즉 전통이 소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만 이슬람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 역자 주) 그들은 높은 교육적인 업적들이 팔렘방족의 문화를 든든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에 대한 그들의 자긍심도 굳건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낮은 계층의 많은 팔렘방족들의 실직과 저고용이 문제다. 팔렘방족들은 가능한 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높은 실직률에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가 문화를 발달시키기 시작했고, 따라서 많은 팔렘방족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고유성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다.

영적인 압박이 팔렘방족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박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고 운명적으로 느낀다. 팔렘방족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공립학교 요가수업에 학부모 "종교활동" 반발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공립 초등학교가 방과 시간에 요가를 가르치자 '특정 종교의 색채를 띤 활동'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학부모 일부는 어린이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행위는 공립학교에 종교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노스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연합교육구(EUSD) 소속 9개 초등학교 재학생 절반이 지난달부터 30분짜리 '아쉬탕가 요가' 수업을 주당 2회씩 듣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 1월부터 수강한다. 앞서 이달 9일 이 지역 학부모 60여명은 변호사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지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은 아쉬탕가는 힌두교적 함의를 띤 요가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고용한 딘 브로일스 변호사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쉬탕가 요가에서 취하는 동작과 자세는 힌두교 신에 대한 숭배와 기도의 형태로 여겨진다"며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뒤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강습에서 영적인 색채를 지녔다는 반론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학교 안에서 결국 힌두교적 사고방식과 믿음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브로일스 변호사는 "아쉬탕가, 즉 8개의 팔다리가 달린 신을 그린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며 "본질적으로는 아쉬탕가 요가를 통해 힌두교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가 수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수업은 전 세계적으로 아쉬탕가 요가를 전파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조이스 재단'의 지원금 53만3천 달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강사들은 모두 조이스 재단에서 훈련 및 인증을 받았다. 현대식 요가의 대부분 파타베 조이스의 헌신적 추종

자로 알려진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가 폴 튜더 존스 부부가 재단 설립에 기여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도 돈을 냈다고 브로일스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 톰 베어드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버지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대학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쉬탕가 요가의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다. 브로일스 변호사는 "아이들이 (실험용) 기니피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학교에서 기독교식 찬양법을 가르친다면 지역사회에서는 격렬한 항의가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야인들 "마야력(曆), 지구 종말론에 악용돼선 안돼"

과테말라 마야인들은 24일 정부와 현지 관광업체들이 마야력에 지구의 종말이 예언돼 있는 것처럼 왜곡,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마야인 단체 '옥살라르후 아호프(Oxalajuj Ajpop)' 대표 펠리페 고메스는 이날 "속임수와 거짓말, 마야 전승의 상업적 이용에 반대한다"면서 "정부와 관광업체들이 마야력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수도인 과테말라시에서 실제로 지구의 종말이 닥칠 경우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과테말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체들은 지구 종말을 주제로 한 관광 코스를 홍보 중이다. 고메스는 마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쇼'를 비판하며 이들에게 종말론 이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고대 마야력이 2012년 12월 21일을 종말의 날로 예측했다는 주장은 일부 영화와 다큐멘타리를 시작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마야력에 2012년까지만 기록돼 있는 것은 시간을 일련의 순환으로 보는 마야인들에게 순환 주기의 하나가 끝난다는 의미일 뿐 세상의 종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고메스를 비롯한 마야인들 역시 "마야인들에게 시간의 순환은 매 주기에 개인과 가족공동체, 지역사회



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지역 5개 도시에서 이번 주기의 끝을 기념하는 종교적 행사를 열 계획이다. 고메스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상업적 쇼 대신 진정한 의미의 기념식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형교회 예배 중 총기난사, 1명 사망

미국의 유명 대형교회에서 아침 예배 중에 중년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인근 학교가 폐쇄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범인은 이 교회를 최근 그만둔 사람으로 10여년전에도 총기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애틀랜타 남부 칼리지파크 소재 '세계변화교회(WCC)'에서 이 교회의 전 직원인 플로이드 팔머(52)가 전도사인 그레그 맥도웰(39)에게 마구 총격을 가했다. 당시 예배당 안에는 25명의 신도가 숨진 피해자의 인도 아래 성경을 봉독하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총알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고 범인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처럼 조용하게 교회 문을 나섰다"고 신도들은 전했다. 범인은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범행 5시간여 만에 애틀랜타의 유명 쇼핑단지인 레녹스몰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이 나타나 체포하려 하자 "와우" 하는 탄성을 내질렀다. 애틀랜타 시당국은 이날 범인의 추가 범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초, 중 학교를 폐쇄했다. 주변 사람들은 범인에 대해 "이 교회를 20년 간 다닌 독실한 사람",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평범한 중년남성"이라고 증언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총기사고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의 전처 어머니에 따르면 팔머는 2001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한 남성에게 총을 쏘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폭행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8개월간 치료감호 시설에서 복역했다. 그녀는 팔머에 대해 "과격함 성격의 소유자"라며 "남에게 시비를 잘 걸고 투박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사고 난 세계변화교회는 세계 개신교계의 지도자인 크레플로 달라(60) 목사가 설립, 시무하는 곳으로 애틀랜타에만 3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미국 최대 교회 가운데 한 곳이다. 달라 목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기복신앙적인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 전파자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달라 목사는 수년 전 현금 유용과 배임 혐의로 의회 조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미성년자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당시 경찰이 "아버지가 또 나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15세 막내딸의 911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마귀의 장난"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시리아 수도 외곽서 차량폭탄 터져 10명 사망

지난 29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동남부 외곽에 있는 기독교도와 드루즈파(이슬람 시아파 소수종파) 교도 밀집지역에서 차량폭탄이 터져 10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국영 TV가 보도했다.



방송은 "자라마나의 루다 거리에 있는 한 빵집 옆에서 테러리스트의 차량폭탄이 터져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으며 5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차량 20대가 파손됐고 상가 15곳도 피해를 당했다. 다마스쿠스 주민들은 자라마나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전했다.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트파이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최대 조직인 자유시리아군(FSA)은 이슬람 최대 명절 희생제를 맞아 지난 26일 임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기간에도 양측의 유혈 충돌은 계속돼 최근 나흘간 사망자는 420명에 이른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가 밝혔다. 한편, 터키군은 이날 시리아 정부군 29명이 반군을 피해 터키 국경을 넘어 도주하는 동안 시리아 영토에서 발사된 포탄이 자국의 하타이주(州)에 떨어져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고 현지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다. 국경을 넘어온 시리아 정부군 중 5명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터키군 예비군 본부로 이송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입가격 \$150.00+Tax

이끼원백 성경 성구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입 가격 \$235.00 +Tax

- 1권:가~나, 2권:다~로, 3권:삿~소, 4권:소유~오, 5권:오~노, 6권:노~렐, 7권:렐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Grid of 12 diary options with titles like 'Immanuel', 'Agape', '하이올', 'Qumran', and 'Oumran' with prices and descriptions.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제 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연안

주제: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1)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본지가 주최한 2011년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연했던 김혜천 목사의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경적 신앙전수의 원리"를 수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친신문에 실리는 필자가 쓰는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에서 다루었다. 읽어 보시면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나는

먼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이라는 주제에서 말하는 세대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대를 표현한다. 나는 이미 3년 전에 본 세미나에서 세대의 변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세대 Cultural Generation이 있다. 20세기 이후의 세대의 일반적인 구분은 먼저 1) Lost Generation: 1914년 즉 1차 세계대전에 싸웠던 사람들을 지칭한다. 2) Great Generation: GI 세대라고도 한다. 주로 1901년-1924년 사이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싸우고, 경제 대공황 겪었던 세대이다. 3) Silent Generation: 1925년-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아버지들이 1차 세계대전 싸웠던 세대이다. 대공황을 겪을 때에 어린아이들이었다. 4) Baby Boom Generation: 1946년-1964년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세대 Cultural Generation이 있다. 20세기 이후의 세대의 일반적인 구분은 먼저 1) Lost Generation: 1914년 즉 1차 세계대전에 싸웠던 사람들을 지칭한다. 2) Great Generation: GI 세대라고도 한다. 주로 1901년-1924년 사이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싸우고, 경제 대공황 겪었던 세대이다. 3) Silent Generation: 1925년-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아버지들이 1차 세계대전 싸웠던 세대이다. 대공황을 겪을 때에 어린아이들이었다. 4) Baby Boom Generation: 1946년-1964년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Lost Generation부터 Generation Z까지 7 문화세대

디지털 세대 문제점 벌써 심각...신앙 질은 더 떨어져

비관론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또한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원한다. 또한 오늘의 강의를 교회적인 전략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남을 블레임(blame)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감당할 몫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경을 가지고 왔다. 5) Generation X: 1960년대-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6) Generation Y: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이다. 밀레니엄 세대, Millennials, Generation Next, Net Generation, Echo Boomers 등도 불린다. 7) Generation Z: Generation I, 혹은 인터넷 세대라고 불린다. 1990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이다. 각 세대들은 공통된 특징들을 공유한다. 지금과 다음의 세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벼랑 끝 세대이다. 복권 로또(Lotto)의 세대이다.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줄 줄 알면서도 쾌락을 원하고 도박을 즐기는 세대이다. 설교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원한다. 책망이나 질책만 어머니의 첫 자녀와 딸의 첫 자녀 사이의 평균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현대화, 산업화, 서구화의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이 생각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로 오는 결과이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서론과 배경

오늘 우리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줄지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오염되지 않는 지구를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적 유산을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자 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해 줄지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상황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과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다른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해 주기 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성경의 모델들을 통해서 과연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능한 여부를 성경의 성공과 실패를 통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신앙 전수의 원리를 찾아보고 우리의 모습과 생활에 새기게 되기를 원한다.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이르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배경과 역사적인 내용의 일부를 격주로 미주크리스

(다음호에 계속)

서부(CA)교회안내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후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8:45 주일 3부 예배: 오후 11:45 목회 상담: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감사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후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8:45 주일 3부 예배: 오후 11:45 목회 상담: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중년) 목회 상담: 오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30(중년, 주일)	나성영일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 목회 상담: 오후 10:00 수요일 기도: 오후 7:30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수요일 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30(중년, 주일)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6:00(중년)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변경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남가주든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목회 상담: 오후 11:30 목회 상담: 오후 7: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동문교회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영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Irene Dayan-Rubin Ozer 대표: 정영자 목사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저용범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경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매달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30 목회 상담: 오후 7:30	템플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범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재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목회 상담: 오후 11:30 목회 상담: 오후 7:30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0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중년) 목회 상담: 오후 11:00	업비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홍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오샘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30 목회 상담: 오후 7:30
침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중년)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중년) 목회 상담: 오후 11:00(중년) 목회 상담: 오후 7:30(중년)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인원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심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토론토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 상담: 오후 11:00 목회 상담: 오후 7:30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2. 최초의 하루

역사는 시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역사가 끝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이 시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지구를 동시에 존재하게 하심으로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기준이 태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시간을 정의할 수 없을까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3일간의 시간이 달랐을까요? 최초의 시간단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지구가 시간의 기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절대시간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56분4초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하루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지구의 공전과 자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계들은 평균 태양일이 24시간이 되도록 국제적인 협약에 의거하여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평균 24시간0.002초라고 한다.

성경은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밝히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3가지의 창조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지구다. 시간은 창조가 시작된 시점인 '태초'부터 지구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시간의 기준이 지구라는 것은 계속되는 창조과정의 설명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중심이 지구인 것을 보아도 지구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

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빛을 창조하시어 그 지구에 시간을 느낄 수 있는 낮과 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루를 정의하였다. 이 표현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

시간은 창조 시작시점 태초부터 지구와 함께 시작 창세기 1장의 '욥' 은 모두 오늘날의 하루와 같아



지구의 밤과 낮
창조 첫째 날부터 자전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지구는 우주 시간의 기준이다.

심을 생각할 때, 첫째 날의 빛은 지금의 태양처럼 한 곳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었고, 지구가 지금처럼 자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00째 날이니라"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6일간의 각각의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 4일째에 태양을 창조하시어 첫째 날의 빛을 대신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욥의 문제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욥)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오늘날 하루와 같은 길이의 '

욥'은 하늘에 광명체들이 창조된 창조 4일째부터이고 이전 3일간의 '욥' 길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유혹은 세상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의 긴 기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허락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창조가 단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한 '날'의 길이는 첫째 날 규정되었지만 제 4일째가 되어서 날-계절-해의 시간체계 전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생각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세상 과학자들의 말에 따라 최초의 3일간의 미지의 신화 속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없다. 세상 과학자들의 긴 기간은 사실일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 증거들도 많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오늘날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럴듯한 이유들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의미와 사용법을 들고 있다. '욥'이란 히브리어는 한국말의 '날', 영어의 'day'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하루가 아니라 특정한 기간

한 편으로는 다른 분야나 대다수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주장이나 바람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17세기부터 학자들이 추정하는 지구의 나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진화론이 등장하기 직전인 1830-33년에 찰스 라이엘이 지은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이 학계를 휩쓸면서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 되었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자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으로 늘어났다. 이 패러다임은 1900년에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고 미국에도 점점 상륙하여 드디어 1960년에 공립학교를 정복하고 말았다. 이런 압력이 신학에도 들어와 수백만 년의 기간은 이미 대부분의 신학교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수천 년을 버리고 수백만 년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창조이론들이 생겨났고 이 와중에 '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던 것이다. 성경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였다. 이 현실에

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2301년 나오는 '욥'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의 기간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욥'은 오늘날 하루다. 더 중요한 단서는 성경의 문법적인 '욥'의 사용법이다.

성경의 문법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의 '욥'은 모두 다 오늘날의 하루다. 성경에서 숫자와 함께 사용된 '욥'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의 '욥'을 제외하고 410번이 나오는데 100% 오늘날 하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6일(욥)간 돌았거나 요나가 불고기 배 속에서 3일(욥)간 있었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숫자와 함께 사용된 '욥'의 사용법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숫자와 함께 표현된 '욥'도 오늘날의 하루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십계명의 제 4계명의 설명으로 '6일 동안'과 '제 7일째'란 설명은 창세기 1장의 날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을 그치게 한다.

수십억 년을 받아들이는 이유와 결과

신학자들 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하는 운명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이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게 되면 고민하며 돌고돌고 찾는 집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때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발견한 원리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자기 학문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다

발맞추어 신학자들 뿐 아니라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도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고 두 세대가 지나자 수많은 예배당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11장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창조와 창조자인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만약 그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려고 까지 하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예(민15:32-36)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도 아닌 6일간을 정해놓고 위반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하루라고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창조가 6일간 진행된 것도 아닌데 십계명 주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예배당 문을 닫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 지구와 지구를 꾸미고 있는 우주는 오래되지 않았다.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다.(DeYoung, Master Books, 2005). 아무도 창조자의 기록한 첫 날을 신화 속으로 밀어 넣지 않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바벨탑목상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흠어져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돌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약육강식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약화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저들이 넓은 시냇 평지까지 나오니 천국과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돌과 흙으로 집을 짓는 기술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흙 대신으로 사용할 만큼 분명히 발달하니 점점 하나님의 소중함이 잊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힘을 숭상하는 홍수이전의 세상 풍조가 잡초같이 번성합니다. 저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힘을 뭉쳐놓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왜 흠어져서 집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무쳐서 숫자가 커짐을 힘의 증거로 여기며 강자가 약자에게 군림하여 큰 내 왕국을 건설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안스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잘해냈다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무신론자의 교만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만든 벽돌에 일일이 그 만든 이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악의 세력이 뭉치면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연합의 이유가 각자의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탐심이기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의 선악과 잣대 때문에 어제 절친한 친구가 오늘은 완전 원수가 되는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탐욕스런 인간들이 권력다툼으로 서로 물고 뜯다가 종국에는 자멸하는 비극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썩어서 아무리 구해주어도 죄악이 넘쳐 포악해지는 죄의 리사이클로 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어 메시야가 오시어 인류의 구원을 터주실려는 하나님의 장구한 인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걸음으로 그들의 언어가 혼동되어 악의 연합을 막으시려 사방으로 사람들을 흠어져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악들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단시일에 자멸하는 속도를 늦추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처방이십니다.

관계 속에 불협화음이 나면 자신의 잣대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문제를 큰 그림으로 직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잡기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허물을 고집이내는 한 해결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에 불려 화평을 깨는 것은 아닐지? 화평을 이루는데 다리 가는 모든 걸림돌들이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바벨탑은 무엇일지? 나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바벨탑의 성향을 분별해내는 말씀의 조명해주심을 구하며 멈추어 서 기도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벨탑들의 벽돌들을 하나하나 헐어내리며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다시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9월)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9월) 수요일 기도: 오후 7:00(9월)	맨얼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보스만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9월)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시카고에브림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알란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9월)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30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9월) 수요일 기도: 오후 7:00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기도: 오후 7: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A Line in the Sand' 주제

2012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성료

미국의 영적대각성과 대부흥을 위한 2012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A Line in the Sand'라는 주제로 27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크렌셔 크리스천센터 내 페이스 돔에서 열렸다.



미국의 영적대각성과 대부흥을 위한 2012년 다민족 연합기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날 아침 10시부터 집회 장소에 백인,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자들이 모여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특히 한인 집회가 열리기전 모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집회는 법계를 단에 들고 올라 마치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을 보는듯했다.

표 데이빗 안드레아 목사는 "지난해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던 지역이 있다. 이곳은 우리의 나라이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 모든 자들이 기도의 용사가 돼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대추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했다.

남가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대표대회장 송정명 목사는 "LA에 살고 있는 다민족이 모여 비상으로 기도대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며 "회, 주립세운교회, 총현선교교회, 이화보결양상블 등 총 9개 팀이 참가한다.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된 한인 특별기도 시간에는 박종술 목사가 찬양 인도를 했으며, 박성규 목사(주남세운교회)가 'LA와 미국사회와 경제회복', 김성민 목사(나성한인교회)가 '개인회개와 영적각성',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가 '사회의 변화와 거룩성 회복',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가 '동성 결혼법 폐지',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

회, 주립세운교회, 총현선교교회, 이화보결양상블 등 총 9개 팀이 참가한다. 김미선 회장은 "매마다 합창제를 준비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며, "이번 찬양제는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종의 재물 잔치와 같은 것"이라 설명했다. 임인용 부회장은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성가대합창제가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되어 기쁘다. 그러나 우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각 교회 지휘자와 반주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애로점이 있으면 나누어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협

또한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캔버스에 옮겨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기도를 드릴 때는 영적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백인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대회 미국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가 11월4일 총현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왼쪽부터 부회장 임인용, 회장 김미선, 서병호 합창분과 위원장.

제31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

11월4일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9개 팀 참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는 제31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가 오는 11월 4일(주) 오후 7시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중

기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합창제는 렌디킵 밴드, 포이에마 합창단, 색소폰 앙상블, 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늘푸른선교교



GKYM주최 Higher Calling 컨퍼런스2012 준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Higher Calling 컨퍼런스 2012

12월 26-29일, GKYM주최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2012 미주청년학생 컨퍼런스가 'Higher Calling 12 The Truth'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샌디에고 타운&컨트리 리조트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차세대 목회자 리더십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KYM준비위원회 및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주최하고 KCCC USA와 2012 Higher Calling Team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주제 성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로 결정됐다. 이번 대회는 서부지역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로 지난 2년간 1세 중심의 GKYM위원회가 준비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젊은 2세 목회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전 대회의 특징은 전체집회가 영어권집회로만 열린다는 것이다. 이는 EM집회에 비해 KM집회에 한어권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KM청년들 역시 KM집회보다 EM집회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올해는 EM집회에 집중하게 됐다. 그러나 쇼그롬으로 모이는 각 트랙은 EM과 KM이 나뉘어져 있다.

GKYM 준비위원장인 김동환 목사(KCCC)는 "이번 컨퍼런스는 KCCC자체 수련회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남가주의 청년 사역자들의 요청으로 GKYM 수련회로 확대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2년간 개최해온 GKYM은 올해 대회는 지난 7월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한인선교대회에서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카고대회 이후 남가주의 청년들을 위한 집회의 필요를 느끼게 돼 열게 됐다"고 밝혔다.

Higher Calling 위원회의 박형은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로 시도하는 것이 이민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라 밝히고 "2세대들이 1세 교회에 오래있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1세 리더십과 2세 리더십 개념차이가 크다. 많은 2세 목회자가 서구리더십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한인교회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다. 이 부분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같이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협회 합창분과위원장인 서병호 장로는 "이번 합창제의 특징은 찬양대에 국한된 찬양제가 아닌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점이다. CCM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렌디킵 밴드는 물론이고 이화보결양상블의 여성중창, 그리고 색소폰앙상블이 출연, 악기로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Higher Calling 컨퍼런스의 강사는 데이브 기브스 목사(뉴송처치), 밀스 맥퍼슨(The Rock Church), 캔벨(창세기 및 범중창 대가),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김동환 목사(미주KCCC대표)와 전문 분야별 약 50여명이 나서서 컨퍼런스를 인도하게 된다.

한편 본 협회는 12월중에 교회음악에 대한 심포지엄을 준비 중에 있다. ▲문의(213)820-3873/회장, (818)294-9467/총무, (박준호 기자)

등록비는 1차 170달러(11/11까지), 2차 190달러(12/9)까지 그리고 3차 240달러(행사당일)이다. 문의는 (213)389-5222, gohighercalling@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엄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재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했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본으로 재부역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학실한 스펙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일)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686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사: (1)교회사 (2)조리신학 (3)미국정통교회사 (4)합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사: (1)구약해설 (2)신약해설 (3)논문 (4)설교본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제 - 아모스 9:11-15
(2) 신약 주제 - 마태복음 16:13-20
(3) 논문 제목 - 율리우스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누가복음 9:23-27
② 설교본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답안에 관련된 선택한 문항을 중심으로 설교본고(3)를 작성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제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시디에 담아 제출 할 것
2. 한필 11호 크기의 글자용지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2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제는 각각 2페이지로 작성하며, 설교본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제는 논리적 완결에 도달 못하여 인용구는 자유롭게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가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고사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과장 확인서 총 1부
2) 신학교 전 재원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서 7페이지 이하) 1부
6) 명함한 사진 2장
7) 고시료: \$15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013년 5월 31일 자 정오까지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월 28일(7월 29일) 중에 집계해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장은 고시부 서기 최상희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 것 4월 17일-21일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할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용어는 화면을 별도로 바꾸지 말 것. 화면에 화면을 바꾸면 시험당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남민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최상희 목사 (Rev. Samuel Hoo) / Email: sho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all : 201-981-0009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oo@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최상희 목사 (201)981-0009 (shoo1004@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김재경 목사 (949)736-4906 (jessiekim@justicepc.org)
4) 영문권 안내: 박준호 목사 (287) 471-7777 (hankchoi@gmail.com)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3)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7(Fri) - 20(Mon), 2013.
2) Place: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686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Amos 9:11-15
(2) NT Exegesis Text - Matthew 16:13-20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NT: Luke 9:23-27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spaces, and end citations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hoo1004@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choi_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August of 2013.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s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3.
(Passages post-received before March 31, 201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Hoo (201)981-0009, (shoo1004@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ion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qualification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Samuel Hoo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 sho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all : 201-981-0009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Chan W. Song (425)773-0504 chansong_hoo@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oo (201)981-0009 shoo1004@hotmail.com
3) squire in English : Rev. Hanks Choi (287)471-7777 (hankchoi@gmail.com)
Rev. James Kim (949)736-4906 (jessiekim@justicepc.org)

동부교계 게시판



제 5회 미동부 친선축구대회

뉴욕목회자축구단(단장 김홍석 목사)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기해 주최하는 제 5회 미동부 친선축구대회가 11월 22일(목) 랜달스 아일랜드에서 열린다. 다민족 선교를 위해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부터는 예선리그를 당일 오전 8시부터 랜달스 아일랜드 82, 83, 84 구장에서 예선 조별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치르게 된다. 다민족부, 일반부, 교회부, 시니어부로 나뉘 총 14팀이 출전하며 17일 오후 8시 신청마감을 한다. 참가비는 팀당 300달러. 우승팀과 준우승 팀에게는 각각 500달러, 3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917)593-9346, (646)287-7169

윤복희 권사 찬양 및 간증집회

뉴욕선교사회의 설립 10주년 기념 '윤복희 권사 찬양 및 간증집회'가 선의선교회 주최로 뉴욕일원에서 열린다. 일정은 △11월 25일(주) 오후 6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28일(수) 오후 8시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30일(금) 오후 8시 뉴저지찬양교회(담임 허봉기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347)732-9459, (917)843-0282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에 있는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인교회 소속 한소망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역은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교단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교단인정 조직교회에서 목회경력 5년 이상, 이중언어에 불변이 없고 미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는 본 교단 PIF와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1부, 목회비전서(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교회관리 및 운영 등 포함) 1부, 학위증명서(학부, 대학원) 및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각 추천인 밀봉 날인) 2부 등이 필요하다. 접수 마감은 11월 26일.

▲접수: www.hopechurchusa.org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 모금음악회

언더우드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강혜미)가 주최하는 뉴브런스워크 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을 위한 모금음악회가 11월 11일(주) 오후 7시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개최된다. 입장료는 10달러이며 노인과 학생은 무료.

▲문의: (201)965-7759

미동부 허리케인으로 교계행사 모두 연기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캔디'로 인해 뉴욕일원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일제히 연기됐다.

먼저 10월 29일(월)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사회는 일주일 후인 11월 5일(월) 오후 7시로 날짜를 연기했다. 장소는 동일하다.

역시 10월 29일(월) 오전 11시 클리어뷰 골프코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 2회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도 일주일 후인 11월 5일(월)로 연기됐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손한권 목사) 정기총회도 1주일 후인 11월 5일(월) 오전 11시 퀸

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양승관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샌디의 영향권 내에 들었던 워싱턴지역의 교계 행사도 연기됐다. 10월 29일(월) 오후 6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차용호 목사) 제 38차 정기총회는 11월 1일(목) 오전 11시 버크 소재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에서 열기로 했다.

또 10월 29일(월)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워싱턴한인교회자협의 회(회장 박인철 목사) 정기총회도 한 주 연기해 11월 5일(월) 오전 11시 웨이크필드 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9일 저녁 강한 돌풍 속에 뉴욕의 거리는 한산했으며 일찍잠지 귀가한 사람들은 전기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잠을 청했다. 이번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동부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정 기자)



뉴욕 크리스천 윈드 페스티벌에서 늘기뽀교회 팀이 연주하고 있다.

뉴욕 4개 교회연합 관악연주회

제 1회 뉴욕 크리스천 윈드 페스티벌

뉴욕의 교회연합 관악연주회인 제 1회 뉴욕 크리스천 윈드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허리케인 샌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아름다운교회 호산나 앙상블(대장 최태식, 지휘 한영수), 뉴욕에일장로교회 예일 윈드 앙상블(대장 정건수, 지휘 윤태석), 뉴욕늘기뽀교회 조이플 윈드 앙상블(대장 이종식, 지휘 장길), 좋은이웃교회 GNCC 심포니 밴드(대장 이동홍, 지휘 김하나) 등 4개 교회 관악팀이 참가했다.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의 축사에 이어 김홍석 목사(뉴욕늘기뽀교회 담임)의 기도 후 시작돼 4 교회 팀의 연주와 인터미션 후에는 합동연주가 이어졌다.

김종훈 목사는 "이민생활에 바쁜 뉴욕에서, 이민교회에서 이런 자리는 쉽지 않다"며 이 공연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목사는 "혈통의 이슬

이 시운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 의 기름부으심이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홍석 목사는 "이 연주회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시간이 늘어가고 주님을 크게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날 아름다운교회는 "내주의 나라", "참 아름다워라"를, 예일장로교회는 "님이 오시는지", "사람의 종소리", 늘기뽀교회는 "코리안 포크 랩소디, Fanfare Prelude on 'Ode to Joy'"를, 좋은이웃교회는 "내 맘 바꾸게"와 클라리넷과 바순의 찬송가 메들리를 연주했다. 또 특별연주로 임마누엘 브라스 쿼텟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됐다.

합동연주는 "주를 찬양하세", "하늘가는 맑은 길", "유레이즈미엄", "뉴욕뉴욕"의 테마곡, "알렐루야" 등을 연주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콜롬비아 대학병원 어린이병동 무료음악회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지난 25일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어린이 병동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열었다. 동 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아환자들은 중증인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어

린이들은 병실에서 중계되는 영상을 통해 이노비 공연을 만났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들과 전문연주자 7명으로 구성된 이노비는 알라딘, 라이언킹, 맘미아 등 유명 뮤지컬 곡을 수준급 연주와 화려한 안무를 더해 공연했다.

강태욱 대표는 "지난 7월에 처음 열었던 공연의 반응이 좋아 다시 찾아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병원 방문콘서트를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기사제공: 이노비)



미기총 뉴욕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단문제 확대 지양...가이드라인 설정하라

미기총 미주지역 순회, 24일 뉴욕 교계간담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지난 24일 뉴욕 교계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기총 미주지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이날 뉴욕교협 증경회장장과 목사 회를 비롯해 현직 회장도 참석했다.

모임은 황의춘 목사 사회로 이대우 목사(동부이단대책위원장)가 이단 실태를 소개했다. 뉴욕 증경회장들은 △인턴이 너무 이단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을 지양할 것과 △미기총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각 교회 목회자들이 이단 지식을 알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문제를 제기한 강승호 목사(총무)는 자녀 문제에 부모들이 교회서나 집에서나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다. 증경회장들은 기쁨을 위한 세미나, 큰 교회와 연대해서 받는 교육, 청소년센터를 통한 교육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녁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소통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황의춘 대표회장은 △이단퇴치에 교파를 초월할 것과 △청소년을 위한 합심 기도운동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했고, 전영현 목사(상임회장)가 미기총의 연혁과 역할을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필라 기독교방송국 후원의 밤 성료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 후원의 밤이 지난 25일 가야 연회장에서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를 초청해 개최됐다.

1부 민영선 목사(운영이사) 사회로 서장석 장로(운영부이사장) 기도에 이어 황의춘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고린도전서 14장 7-8절을 인용, "복음의 나팔"을 주제로 "이 시대의 소망을 주는 복음방송의 사명을 인식하고 분발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축도는 박등배 목사(필라교협 회장)가 했다.

이어서 2부는 차형원 장로의 애찬 기도 후 사장 전영현 목사는 "지난 15년 동안 기독교방송의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원과 기도로 성

원해준 각 교회, 목사, 장로, 후원이사, 전사회원, 광고주와 애청자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강승호 목사(운영이사)의 내빈소개 후, 김문열 기획팀장의 직원소개가 있었다.

3부는 김한규 기획실장 사회로 전용대 목사와 그 팀들이 복음성가를 열창했다. 전 목사는 "방송은 전파를 통해 어디든지 전파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필라 기독교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전세계에서 청취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215)924-0191, 0691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비전청소년센터 후원의 밤 성료

뉴비전청소년센터(원장 채왕규 목사) 후원의 밤이 지난 23일 저녁 필라델피아 라이라이 식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채왕규 목사 사회로 기도 강남수 목사(좋은씨앗교회), 성경봉독 이광호 목사(뉴욕 중국뉴비전청소년센터), 말씀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축사 송중근 필라델피아한인회장, 축도 박등배 목사(필라교협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서경희 부원장 사회로 정명일 뉴비전청소년센터 스텝의 간증, 홍석원 스텝의 노래, 전용대 목사의 간증 및 찬양 등이 이어졌다.

정명일 군은 동 센터의 스텝으로 있으면서 외로움과 사랑이 부족한 동생들을 돌보면서 희망을 찾았으며, 한 동생은 1주일 동안 필라에서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까지 자신을 찾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주니 그 동생이 많은 변화를 통해 이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고 간증했다.

한편 동 센터는 26일 등지교회, 28일 델라웨어 섬김의교회에서 뉴비전청소년센터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기사제공: 뉴비전청소년센터)



필라델피아 라이라이에서 열린 뉴비전청소년센터 후원의 밤



KAFHI(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1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포럼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1971년 래리워드 박사에 의해 시작되 국제선교구호기구로서, 빈곤국가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동체 개발 선교를 위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KAFHI는 미국내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제기아대책(FH) 소속 NGO 선교기구로서 2002년에 설립된 어린이결연, 긴급구호, NGO선교훈련, 기아봉사단 파견을 해왔습니다.

- **일 정** 2012년 11월5일(월) 오후5시-11월7일(수) 오후 5시
- **장 소** 등록 및 숙박, 아침기도회 Hampton Inn & Suites Phoenix Chandler-Fashion Center AZ 1231 South Spectrum Boulevard, Chandler, Arizona, 85286, USA TEL: 1-480-917-9500
- **예배 만찬 및 포럼** 템피장로교회(담임목사 윤정용)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Tel: 480)726-0191 FH 국제본부 / Food for the Hungry, 1224 E. Washington Street, Phoenix, AZ 85034-1102
- **회 비** 1인당 150불, 당일등록 200불입니다.(숙박, 전일정 식사, 세도나 포함입니다) 선교사님은 항공료 지원합니다
- **내 용** 기념예배 및 선교사상식, NGO 선교도전(이원상 목사), 세계선교동향과 이슬람선교(백신종 선교사), FH본부 견학 및 VMV(Marty Martin), 빈곤아동후원을 통한 지역선교(정승호 목사), NGO 선교보고(케냐, 캄보디아, 자메이카, 아이티), 지역교회 선교모델(주예수, 새소망, 한길, 헬로섬), 선교간증(이중도, 백신종, 조미선, 권오준)
- **등 록** 11월5일(월) 오후3시-5시(Hampton Inn 로비, Chandler, AZ) 회비 200불(호텔 숙박 및 교재제공)
- **대 상** 선교사 및 선교사 지망생, KAFHI 전 현직이사, 국제본부 임원, NGO 선교관심자,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및 선교부장
- **연락처**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Office 847-296-4655,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703-473-4696, shchung@fh.org

초청인 명예이사장: 이원상 목사
 이 사 장 :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 이순근 목사, 이종근 목사, 노전준 목사, 최연석 목사
 회 장 :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 정승호 목사

“성령 받아 전도의 삶 살자!”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 5개 교회서 연속 열려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가 24일부터 28일까지 남가주일대 교회들에서 각각 열렸다. 24일 저녁 ANC는 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첫날 저녁집회에서는 흥성관 목사의 기도 후 윤호균 목사가 설교했다.

윤호균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래지향성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 상처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성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 첫째날 윤호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령이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면 인격 변화가 일어난다. 원망이 감사로 다투던 것이 화복으로 변화가 된다”고 설교했다.

또한 그는 “주의 성령을 부여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

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나 혼자만 구



한인무료 건강검진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12 한인무료 건강검진 성황

남가주교협, LA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병원 합동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LA대한국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 병원 합동으로 주최한 2012 한인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총영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요일 아침부터 LA총영사관 주차장과 사무실에 마련된 건강검진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가득 찬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독감예방 주사’, ‘유방암 매모그램 촬영’,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진’, ‘침술, 한방치료’, ‘B형간염 피검사’, ‘폐활량 검사’, ‘HIV/성병 검사’, ‘혈압검사’, ‘체지방검사’, ‘암, 영양, 당뇨병, 장애에 대한 정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의 목사는 “이번 무료건강검진 행사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황을 이뤄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

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그 사람도 함께 천국 가도록 하자. 최고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교가 끝난 후 유진소 목사가 △미국의 대선과 한국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번 남가주 영적 대각성집회는 둘째 날 목요일 집회와 셋째 날 토요일 집회는 새벽 5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넷째 날 저녁집회는 은혜한인교회, 다섯째 날 일요일 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은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집회가 열렸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 영적쇄신집회에서 임현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열방이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하라!’

LA사랑의교회 제9차 영적쇄신집회, 강사 임현수 목사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9차 영적쇄신집회를 ‘열방이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하라!’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크톤톤빛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기섭 목사 사제로 시작된 첫날 저녁 집회는 이영섭 집사가 기도, 2, 3부 찬양대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이어 임현수 목사가 ‘교회존재의 목적’(마28:1-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개구리를 끓는 물이 담긴 비커에 넣을 때와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고 물을 서서히 데울 때 개구리의 모습을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할 임 목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타성화가 되다 보니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타성화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죄성에 젖은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

습을 보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자정능력 잃어버린 것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충고하고 있는 마음 아픈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이 말세임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도를 강조하며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사람을 복음으로 다가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한사람을 그리스도 안 에 온전한 자로 세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교회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전도자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많을수록 바람직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목사는 둘째 날 새벽집회는 ‘교회 부흥의 원리’(대하7:14), 둘째 날 저녁집회는 ‘무화가 나뭇잎이’(겔 37:15-17), 주일 예배는 ‘복음화된 조국 통일의 비전’(창 45:1-1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연목회 학술세미나 개최

‘목회자 리더십’, ‘이민교회와 이민신학’ 주제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회장 정요한 목사, 이하 연목회)는 지난 23일 미주복음방송 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회장 정요한 목사 사회, 김영일 목사 기도 후 증경회장 한기형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바울의 감시기도’(엡1:16-19)란 제목으로 말씀을

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변 목사는 “건강검진 등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65세 미만은 매달 800달러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영세민들이 이만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을 들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행사처럼 무료건강검진 행사가 지속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영성 총영사는 “이번 무료검진 행사는 5번째로 열게 됐다. 홍보도 많이 되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은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이라 마음이 안타깝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열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국제기아대책한인본부 선교포럼

국제기아대책한인본부 설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포럼이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아리조나 템피조로교회(담임 윤정용 목사)에서 개최된다. 선교포럼에는 이원상 목사, 백신중 선교사, 정승호 목사 등이 강사로 서며 NGO 선교보고, 지역교회 선교모델 및 이중도, 백신중, 조미선, 권오준 선교사의 선교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문의: (847)296-4555/(703)473-4696

나성서부교회 말씀집회 및 임직식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추계말씀집회를 11월 1일(목)부터 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이정현 담임목사이며 일정은 1일과 2일은 오전 5시45분과 오후 7시30분, 3일 오전 6시30분과 오후 7시30분, 4일 오전 8시와 11시. 한편 임직식은 4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며 최인용, 신현수, 송원상, 오세철 씨 등이 인수집사취임, 피영문, 박준, 차정만, 유훈 씨가 안수집사 장립을 받는다.

▲문의: (323)939-7323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요한 목사)는 11월 12일(월) 오전 11시 동문회 총회 및 이사회 발족식을 갖는다.

▲문의: (213)999-0671/조요한 회장, (323)317-3749/최명상 준비위원장

LA카운티정신건강국과 한인종교지도자 모임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미국에서 최초로 정신건강서비스에 영성을 접목 치료하려는 시도로 마련하게 되며 이날 주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겪는 위기 상황과 평가 및 대처방법’이며 15일(목) 오전 10시-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213) 738-3446

LA기윤실 11월 8일 건강포럼 개최

사회봉사상 시상..방주교회, 국제결혼가정선교회

LA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는 오는 8일(목) 오후 7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3130 Wilshire Bl. LA) 강당에서 ‘교회 건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건강교회 포럼을 개최한다.

기윤실은 무리한 교회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교회건축은 과연 필요한 일일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짚어가며 신학적,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 1회 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식도 갖는다.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와 단체, 개인을 알리고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봉사상은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매달 250여명의 독거노인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와 외국인교와 결혼 후 이혼한 여성들과 고동당하는 한인 이웃을 돌보고 지원하는 국제결혼가정선교전국연합회(회장 이정희)가 받게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연목회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31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

31st Southern California Choir Competition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께 문안 드립니다.
본 남가주 한인 교회음악협회는 1971년 초교파적인 교회연합기관으로 창립된 이후에 지난 41년간 남가주에 속한 한인교회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인교회간의 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음악을 통한 복음전도사업과 신앙부흥운동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왔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남가주에 속한 각 한인교회 찬양대를 중심으로 ‘제31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Special Guest
Randy Kim Big Band & Bethesda Students Choir

○행 사 명 : 제31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
○대 상 : 각 교회 찬양대
○일 시 : 2012년 11월 4일(주일) 오후 7:00
○장 소 :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4565 Colorado Blvd, LA, CA 90039 / (818)549-9191

[문 의] 회 장 : 김미선(213)820-3873
합창분과위원장 : 서병호(562)569-3806
총 무 : 유기홍(818)294-9467

목사님,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한인 교회음악협회

후 원 : 한국일보,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기독교일보

Bethesd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B 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동문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베데스다 대학교 및 대학원 총동문회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모든 동문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2012년 11월 12일 (월) 오전 11시
2. 장소: 베데스다 대학교 재플실
3. 내용: 1) 예배 2) 동문회 총회 3) 동문회 이사회 발족 4) 점심식사
4. 동문회 이사 및 후원 이사 선정 기준
 - 1) 동문 이사: 학교졸업 및 예정자로서 년 200불 회비 가능자
 - 2) 후원 이사: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년 200불 이상 납부 가능자 (동문이 아니어도 됨) (참고: 2,000불 일시납 하신 경우 평생이사 임명)
- 3) 이사 임명패 증정
5. 연락처
 - 1) 총동문 회장 조요한 목사 (213)999-0671
 - 2) 베데스다 대학교 총무처장 임용출 목사 (310)803-7617
 - 3) 준비위 총무 최명상 목사 (323)317-3749
 - 4) 베데스다 대학교 Office (714)517-1945

Tel 714.517.1945
성/원인성 인과금의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악성 네티즌, 목회자에 '집요한 비방' 심각 안티카페 2만3000여명 · 반기독시민운동연합 1만8000여명 활개

인터넷 공간에서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었다. 목회자에 대한 집요한 허위사실과 험담 유포, 비방 행위인 '사이버 불링'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목회자는 한국 교회에 인지도가 높은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개독(기독교) 박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악성 네티즌들이 '개한민국 개독년놈들' '돈밖에 모르는 놈' '개독 영업사원' '일개 교회 개독 목사 한 마리' 등과 같은 심한 비방글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목사의 경우 2003년 고인이 됐음에도 개인 이력과 사진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형제와 아들까지 표적으로 삼으면서 과도한 신상털기가 전개되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은 "유영철과 조두순이 모태신앙이고 교회집사다"는 등 터무니 없는 루머와 상충작용을 벌이며 한국 교회를 부정적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목회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은 특정 목회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기에 절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대변인은 "우려스러운 사실은 최근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2008년부터 주요 목회자 비방 동영상과 모 목사의 '과로사(過勞死) 기념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독교인과 교회를 증오하고 심하게 비방했는지 알 수 있다. 교계에선 유신론과 무신론의 이데올로기 충돌과정에서 나타난 안티 기독교 세력의 폭력성을 정확히 인지, 대응기구를 만들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신론자들의 기독교 박멸운동=안티 기독교운동은 다음 카페에 2000년 6월 '클럽 안티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다. 이후 2004년까지 '기독교비평' '안티기독교' '안티 바이블' '안티개독교' 카페 등이 출범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교회 개혁이나 윤리성 문제가 아니었다. '전통문화 파괴, 국조단군 부정 독선적인 기독교를 추방하자'(카페 안티기독교) '기독교의 폐단 자체가 기독교 경전인 바이블을 토대로 나온다'(반기련)는 표어에서 볼 수 있듯 무신론적 세계관 아래 "기독교를 박멸한다"는 것이

서 유포=반기독교 세력이 활개를 친 결정적 계기는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였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선교대원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이나 자국민 보호라는 명제는 덮어놓고 개인 책임이므로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비련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아프간 사태의 진실규명과 협상내용 공개, 구상권 집행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관계자는 "충격적 사실은 피랍 당시 디시인사이드 종교갤러리 회원 중 일부가 탈레반에 '포로들은 이슬람을

모독하면서 아프간을 기독교화하겠다고 한 한국의 극단적인 기독교인'이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긴박한 피랍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을 보낸 것은 결국 선교대원을 제거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티 세력들은 '이후 우리가 대놓고 까도 국민정서 때문에 개독들이 종교탄압이네 하는 소리를 못할 것'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반기독교 정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교계 공익소송기구 하루빨리 세워야=이들의 활동은 영역을 확장시키며 계속되고 있다. 반기련의 핵심인사였던 김모씨는 2007년 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 목사를 공격했다. 반기련 등 반기독교 세력은 2010년 2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버스광고판을 설치하고 출판 공연 정기산행 '바이블 19금 지정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안티 카페에는 2만3000여명이, 반기련에는 1만834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인터넷 관리침해 신고를 대항할 단체와 공익 소송기구를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 (2) 예상 통합

이홍정 예상통합총회 사무총장은 "지금 시대는 사회적, 영적 차원의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면서 "치유와 화해의 생명의 공동체운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2012-2015)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올해 제97회 총회에서 정한 주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에 따른 사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손달의 총회장은 "경제적 빈곤층을 비롯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및 결혼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작은 이'들의 빛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교회의 실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합 총회는 1차로 오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차례에 걸쳐 부산과 전북 전주, 경기도 일산에서 총

했다. 연합사업에 있어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WCC 부산총회 개최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동역교단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사업 전문가 발굴·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통합 총회는 목사·장로의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 여부와 군·농어촌 선교 활성화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통합총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통합교단의 교세는 예상합동에 이어 2번째로 쏠린다.

지난해 말 현재 통합교단의 전체 교인(재적교인 기준) 수는 285만212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186명 감소한 수치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손달의 총회장은 교인 수 감소 현상에 대해 "단기적인 접근보다

작은 이들의 빛되어...치유·화해 생명공동체로 교인수 285만여 명...예상합동 이어 두 번째 규모

회 주제에 따른 신년목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2단계(2015-2018)는 제100회 총회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다. 통합 총회는 종교개혁의 신앙유산을 계승하고 교회 일치·평신을 위한 사업, '글로벌 총회'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제3단계(2019-2022)에서는 한국과 세계의 지역 교회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지구 생태환경 운동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통합총회가 안고 있는 정책현안 및 과제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정제 및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교회성장 과 관련, 세부적인 전도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교회개혁과 선교 교육지원부는 장로교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새로운 교회학교 공과 교재 보급에 나서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쇠퇴하는 교회학교의 부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선교부는 선교장구 일원화, 총회와 해외 선교회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 한인교회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 주요 과제다. 사회봉사부는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및 대북구호사업을 통한 교회 연합·일치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합총회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교회 수는 8305개로 전년도(8162개)보다 늘었고, 목사도 1만6257명으로 전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도사와 교육전도사 수는 각각 2747명, 4628명으로 전년도보다 2-3% 정도 감소했다. 장로수(2만7487명)와 권사수(13만7017명), 세례교인수(171만7790명)도 증가했다.

주일학교의 경우, 2000년대 후반 들어 영아부(0-2세)를 제외하고 유아부(3-5세), 유치부(6-7세), 유년부(초등 1-2년), 초등부(초등 3-4년), 소년부(초등 5-6년), 중·고등부(중1-고3) 등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주일학교 회원 수는 50만1298명으로 전년도(52만7017명)에 비해 2만5719명 감소했다. 이 밖에 전국의 노회 수는 기존의 총청노회가 총청북노회로 분립되면서 64곳에서 65곳으로 1개 노회가 늘었다.

또한 목포동노회는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땅끝노회'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됐다.

아세아연합신대 34회 선교대회 학원정상화 바탕 세계선교·복음화 전략 모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지난 25일 제34회 선교대회를 갖고 세계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교대회에는 아신대 소속 28개 선교연구원의 후원자와 16개국 학생들이 참석했다. 헌신예배 주강사로 나선 도미니카 세계선교연맹 대표 최광규 선교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선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신대 출신인 그는 도미니카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00여명이 모이는 현지 교회와 중·고등학교를 맡고 있다. 최 선교사는 "세계선교를 통해 국가 재앙을 막고 나라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동아시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아신대가 지역 복음화는 물론 세계선교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영욱 아신대 총장은 "앞으로도

아신대 출신 선교사 중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선교활동을 청취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선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회 후 아랍 아프리카 북한 네팔 중국 등 9개 선교연구원은 개별 모임을 갖고 지역 지도자 육성과 세계선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가 장기간의 학내 갈등을 뒤로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11년 법원 판결 이후 절차에 따라 새로 선임된 10

명의 이사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

Acts 이사회는 지난해 초 김영욱 전 교수를 제 8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학교가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 사태로 정면 회 채우지 못했던 신입생 모집도 회복됐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가르쳐 선교지로 돌려보내는 교육사업이 정상화되면서 현재 55명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김영욱 총장은 밝혔다.

교계 단신

“북한구원” 3000인 목사단 결성 특별기도회

탈북자 복송반대와 북한 구원을 위한 3000인 목사단, 3000인 장로단, 3000인 여성지도자단이 결성됐다.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탈북교연)은 25일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특별기도회를 열고 3000 목사단·장로단·여성지도자단을 발족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결성된 해외 3000인 목사단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도 같은 목적의 단체가 조직된 것이다. 1000여명 규모로 시작한 국내 조직은 이날 출범과 함께 구

합에 나서 빠른 시일 내에 3000명씩 채울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측에 "탈북난민 복송반대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WCC에 대해 "남북평화를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 전 재귀 선교사 석방을, 우리 정부·정치권에 북한인권법 제정과 종북좌파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교주, 법원 출석 거부

[CBS]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지난 24일 자신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출석 명령을 거부했다. 법원은 여신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만희 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이만희 씨는 지난 5월 대전 성지교회 심상호 목사가 설교에서 자신의 여자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심 목사

를 대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1차 심리를 기졌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신천지 맞다이지과 1씨와 교주 이만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여신도 성추행 의혹은 더 커졌다.

결국 논란의 당사자 없이 진행된 2차 심리에서 신천지 측 증인 1씨는 이만희 교주가 부녀자를 포함해 8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 영웅 영감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스 건너길)
Tel. 213.487.5446 Cell. 213.683.9161 Email. leguesthouse@l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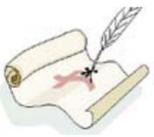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이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북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선교지 편지

아이티

갑자기 내린 비로 운동 물바다가 되어버린 간시에 지역은 현재 초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허리케인 Sandy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비처럼 아이티에 활기찬 간상체가 복구만도 몇 년이 걸릴 정도의 큰 상처도 남았습니다.

지진에 콜레라에 태풍피해까지 도저히 정신을 차릴 틈이 없이 몰아치는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일 동안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센터 내의 곳곳에서 비가 들어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때도 지난번 태풍의 피해를 당한 터라 조심하느라 비단장을 잘쳤습니다. 학교의 지붕도 튼튼하고 교실에 비가 들어치기는 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선교관 두 가장은 워낙 비가 많이 온 터라 창문 틈으로 흐르는 빗물이 스미는 것을 연신 닦아내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림은 아직 창문이 달리지 않아 거실 이 빗물로 강장을 이루었습니다. 매 시간 빗자루로 물을 쓸어 내야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 창문이 없어서 그대로 물물이 내실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미니카의 맥스가 빨리 일처리를 해주었다하면 좋을 것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날이 개이면 다시 모기로 몸살을 앓게 되고 비가 오면 물로... 며칠 만에 비가 개어 센터를 벗

어나 보았습니다. 길거리 102번 국도는 계속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범람하여 그야말로 하천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교통수단인 팜팜이 다니지 못하자 사람들은 발을 걷고 흐르는 물살에 처박혀서 걸어서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행여 물이 뜰까봐 서행하는 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차가 많이 물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시동이 꺼질까 안전 부절 하며 물살을 지나고 디젤을 사려고 주유소에 도착하니 앞선 데 닳친 격으로 기름도 많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도입되는 기름 값을 차리지 않자 항공에 정박한 유조선이 기름을 내리지 않았고 곧 기름 파동이났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은 벌써 사람들이 길을 막고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억지로 옆으로 돌아 센터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포토프랜스로 나가는 중에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집이 침수된 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된 채 보내게 되자 곳곳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차가 선 채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자고 해서 다시 차를 돌리기는 했는데 돌아오는 길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나 온 마을 사람들이 차를 가게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처음부터 과

격합니다. 데모로 시작하고 데모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하다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대화의 시작이 데모이고 끝이 데모인 그런 이해 불가한 행동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서서히 비켜주는 사람들 틈을 지나 센터에 돌아와서 가정예배로 셉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만나고 의뢰했던 그 하나님과 다윗왕이 노래한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나와 대화를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길이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아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셉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방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 많이 하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빕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한성 김은주 선교사 드림
cafe : http://cafe.daum.net/stonvill

알칸사제자들교회 설립9년 만에 첫 장로장립

지하교회에서 드림홀 예배당 건축까지 동거동락

지난 10월 14일 알칸사 제자들과 회(담임 전담수 목사)에서는 '가족 옷을 입히시라'(창3:21)라는 주제로 가을부흥성회 및 장로 임직식을 가졌다.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4명의 장로들을 장립하는 임직감사예배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도 초청하며 전교인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자들의교회는 2003년 6월 전담수 담임목사의 신학교 기숙사 아파트 거실에서 10여명의 성도들이

이커의 수양관 및 묘지 부지와 본당이 위치한 웨스트 리틀락의 14에이커 위에 23,000sqf의 예배당과 부속 건물과 대외에 잘 알려진 활발한 한국교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역들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교회의 특징은 오전 오후 예배사이엔 전교인이

시면 여러분의 손으로 뿔히셔도 목사가 안수를 못합니다"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근년에 세워진 네 명의 장로는 2003년 설립예배 때부터 함께 동역 하면서 언약 결핵 같이 지하교회에서, 1차 예배당 매입과 비전축 건축, 2차 드림홀 예배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다.

교회법의 원리처럼 7년 무효이 아닌 9년을 함께 한 이들은 일주일 에 한 번씩 두 시간동안 동일 성경 본문을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공부했으며, 또한 함께 새벽제단을 쌓으며 영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던 분들로, 이민교회에서 보기 드문 복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교인 제자훈련, 새벽제단 강조, 부속기관 마련 지역사회에 이바지

개혁예배를 드렸다. 제자훈련과 새벽기도를 포함한 예배중심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맞아 현재는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250여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한 성도의 헌신으로 시작된 80여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자훈련을 비롯해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월삭기도회 등 예배중심적인 교회 운영지침과 새벽기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담수 목사는 임직 투표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안 하

담임 전담수 목사는 "직분 임직식을 앞두고 선배 목사님들의 인사말에 염려와 축복이 함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이어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는데, 염려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고 기대 가운데 기도하면 참 좋은 아름다운 장로님들,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더욱더 훌륭한 장로님으로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새로 임직받은 장로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잘 협력해 주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당회를 만들어 갈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중남부 지역의 작은 도시 리틀락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로임직식을 마치고 전담수 담임목사(앞줄가운데)와 임직자들(앞줄) 기념촬영했다.

선교지 단신

미안마, 종교분쟁 유혈충돌로 사망자 100명 넘어

미안마 서부 라카인 주(州)에서 발생한 라카인족 불교도와 로힝야족 무슬림 간 유혈충돌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종교분쟁이 격화되면서 미얀마 정부는 양측에 폭력 자제를 호소했고, 유엔은 이번 충돌로 시작 단계인 미안마의 개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슬람계 정당인 국민민주개발당(NDPD)의 플라태인 부총재는 dp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유혈충돌로 무슬림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번 충돌로 여자 31명 등 56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가족 1천900 채와 종교시설 8곳이 불에 타고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대통령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라카인족 불교도와 로힝야족 이슬람교도 양측에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군과 경찰, 지방 정부가 국민과 협력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소요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도 반기문 사무총장 대변인의 성명에서 "공격 행위와 표적 위협, 극단적인 선동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의) 사회질서 구조가 크게 손상되고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카인 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로힝야족 이슬람교도와 라카인족 불교도 간 유혈충돌로 87명이 숨지고 1천200명이 다쳤다. 8만여 명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다. 라카인 주에는 대다수가 방글라데시 출신인 로힝야족 이슬람교도 80여만 명이 수십 년째 살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유혈사태를 피해 국경을 넘어 오는 로힝야족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시리아 반군 내부 이슬람-세속주의 갈등 심화

시리아 반정부 세력내 이슬람 강경세력과 세속주의 성향의 반군들 사이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BC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자유시리아군(FSA)내 두 세력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 현지 여성 반군의 입을 빌려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두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FSA 산하 지역여단 소속의 움 아마트(20)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이 지역 최초의 여성이라고 BBC는 소개했다.

(15면으로 계속)

월드비전, 허리케인 샌디 구호활동 확대

월드비전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 규모를 확대하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뉴욕, DC, 웨스트버지니아 세 곳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구호활동 직원들을 비상 대기시켜 놓고 피해 규모에 따라 구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식량, 담요, 개인위생 용품 등의 구호 키트를 실은 트럭들이 달라스 인근에 있는 월드비전 재난 구호본부로부터 출발해 이번 주 내로 동부 연안의 주요 피해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DC와 달라스 재난 구호본부에 추가 구호품을 비축해놓고 구호 활동 확대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 있는 월드비전 국

내 자연 재난 구호팀장인 Phyllis Freeman은 아래와 같이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스트 강 수위가 높아지고 교량이 폐쇄됨에 따라, 월드비전 직원들이 비교적 안전한 맨해튼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전기용품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구호품들을 높은 지역으로 옮겨 놓았지만, 강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긴급 구호팀의 구호품 배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일어난 6개의 주요 자연 재난 사태에서 총 4만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던 월드비전은 올해, 허리케인 이삭(Issac), 클라호마 주 산불, 텍사스 토네이도 사태 등에서도 구호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손실을 일으켰던 2005년 허리케인 카

트리나(Katrina) 사태 당시, 월드비전은 82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31만 명에게 분배한 바 있다.

한편, 허리케인 샌디 구호 활동 도내이션을 위해서는 'GIVEUSA' 문자를 777444로 보내어 10달러씩 기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한국어 안내 전화 1-866-육이오-1950에 연락해 구호 활동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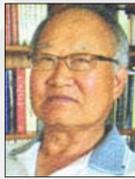
(기사제공: 월드비전)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권희수 교역자: 케미턴원 주일 14시: 오전 8:3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 24시: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11:30 시계기도: 오후 8:00(월-목) 오후 8:30(금-토)</p> <p>Tel: (718) 259-7888, 468 (462) 779-8771 41-44 46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kcc@kccny.com</p>		<h4>낙원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4시: 오전 8:45 주일 24시: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 482-7788, Cell: (917) 488-8881 41-49 Queens Blvd, Queens NY 11364 E-mail: lcc@lccny.com</p>		
<h4>뉴욕셋째마태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00</p> <p>Tel: (718) 482-2282, (718) 482-2222, Fax: (718) 482-4669 42-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setjema.com</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45</p> <p>Tel: (718) 481-6198, Fax: (718) 481-6422 40-66 46th Ave, Queens NY 11364 www.mokyang.com</p>	<h4>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택원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1-1877, Fax: (718) 481-1861 2 Nassau Hill Blvd, Port Washington, NY 1106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철 주일 14시: 오전 10:3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1-2810, Fax: (718) 481-3411 48-9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h4> <p>담임목사: 이합호 주일 14시: 오전 7:30 주일 24시: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3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p> <p>Tel: (718) 481-7828, Cell: (917) 481-7777 48-9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ynccny.com</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 24시: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8:45(월-토)</p> <p>Tel: (718) 481-7828, Cell: (917) 481-7777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5 242-10 News Building Bldg, 145th Ave,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4시: 오전 8:3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00(월-토)</p> <p>Tel: (718) 481-3021, Fax: (718) 481-8778 71-77 Boro Park E-mail: cc@ccny.com</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환 1부 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후 10:15 4부 예배: 오후 12:30 5부 예배: 오후 1:30 6부 예배: 오후 3:30 7부 예배: 오후 7:30 8부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새벽 8:00(월-토)</p> <p>Tel: (718) 782-4758, 2525, Fax: (718) 981-3111 42-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1-6198, Fax: (718) 481-6422 40-66 46th Ave, Queens NY 11364 www.stjohns.com</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4시: 오전 10:3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p> <p>Tel: (718) 481-1877, Fax: (718) 481-3411 37-47 164 St, Flushing, NY 11358</p>	<h4>풍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혁명 주일 14시: 오전 11:30 주일 24시: 오전 8:45 수요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718) 259-7797, Fax: (718) 259-4364 160 Edison Ave, Westbury, NY 11591</p>	<h4>메디나교회</h4> <p>담임목사: 장동관 주일 14시: 오전 7:30 주일 24시: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월-토)</p> <p>Tel: (718) 481-3860, Cell: (917) 481-386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5 주소: 420 46th St, Flt Flt, NY 11358</p>	<h4>어린이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백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00</p> <p>Tel: (718) 481-4228, Fax: (718) 481-3437 8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유니온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박재철 1부 기도회: 오전 8:3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예배: 오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5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30</p> <p>Tel: (718) 481-0444, Cell: (917) 481-0234 488 St. George Ave, Roseton, NY 11765 E-mail: ucny@ucny.com</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근 주일 14시: 오전 12:30 새벽기도: 오전 6:30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718) 782-4758, bcc@zbcny.com 7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481-9022, Fax: (718) 481-6742 442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핀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규성 주일 14시: 오전 8:3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2:15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00</p> <p>Tel: (718) 481-1840, Fax: (718) 481-7789 142-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zpcny.com</p>	<h4>핀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림 주일 14시: 오전 8:30 주일 24시: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11:30</p> <p>Tel: (718) 481-1100 89-90 22n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zpcny.com</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재이름 주일 14시: 오전 11:30 주일 24시: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8:30(월-토)</p> <p>Tel: (718) 481-1100, Cell: (917) 481-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5 E-mail: hmcny@hmcny.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4> <p>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4> <p>L.A.: Tel: (323) 985-0009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4시: 오전 11: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45</p> <p>Tel: 5277-1488, Fax: 2039-8242 Rua Josefa Rosa, 281, Camburi 2, Paulo Cep 05028-29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종현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45</p> <p>Tel: 011-55-11-3279-8233, 3279-5261 R. Limão Verde 17, Americana SP CEP 13166-019</p>	<h4>브라질 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4시: 오전 8:30 주일 24시: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 24시: 오후 8:30</p> <p>Tel: 5271-9999-8794, 5262-1188 RUA SANTA CRUZ, 225-PAULISTA, PAULO-CEP-02425</p>	<h4>아르헨티나 제임교회</h4> <p>담임목사: 최병민 주일 14시: 오전 11:00 주일 24시: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17시 기도회: 오전 7:4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 24시: 오후 12:30</p> <p>Tel: (54) 914-531-1758 AV. CABAÑAS 1352, CAP.FED., B.R.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황희상 주일 14시: 오전 11:00 주일 24시: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17시 기도회: 오전 7:40 수요예배: 오후 8:30(월-토)</p> <p>Tel: A 6822558-7326, 6823161-8389 Santiago Curve - 9 Calle,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 14시: 오전 8:00 주일 24시: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 4, 5, 6, 7, 8, 9, 10, 11, 12)</p> <p>Tel: (596) 127-574-896 E-mail: cc@ccparaguay.com Carverton MO, 1301, Anacón-Paraguay</p>

기독문학소설

《뽀》와는 다른 이야기 (2)



정충해 박사 (문학인)

그날 저녁 무영은 그 병원 수술실에서 막혀 있는 혈관을 가로지르는 바이패스 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몇 주 후 일어선 제법 거동할 만큼 뽀이 회복되자 되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경색되어 막힌 성심은 의심스런 혈관이 두세 군데나 더 있으니 앞으로 수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지시가 내린 것이다.

무영은 병원에서 집에 돌아와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내가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했다. 아내는 고개 숙인 남편과 두 딸자식을 앞에서 가부장인 아빠가 제발 예수를 잘 믿어, 자식들이 아빠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무영은 심장이 멎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자신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 동시에 자기가 살아난 것은 아내가 말한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

중학교 시절 미션학교에 다닐 때부터 무영은 예수교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 나게 들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자기 동급반에서 자기의 짝이 된 급우가 그때 말로 독실한 예수생이었다. 이 급우는 특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어찌고저하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 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종용을 했다. 그럴 때마다 "자제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게나. 난 전혀 관심이 없네"라는 말투로 그런 초청에는 언제나 냉소적이었다.

그때까지 예수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다 약자들이 기대고 싶어 하는 하나의 심리적 버팀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무영이도 심장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고부터는 자기 아내가 믿는 기독교와 그녀가 봉사하는 교회에 대해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영은 이윽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방바닥에 쓰러져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만약 아내와 자식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내와 자식들이 나타나 목숨을 건진 것이다.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그렇다면 나를 더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나의 아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영은 그 다음 주일부터 처음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따라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시간 전에 갖는 성경공부반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집에서 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다. 그리하여 성경을 펴본지 불과 일 년이 못되어 신구약전서를 모두 통독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가 가리키는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았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기독교의 진리가 전혀 생소하지 않고 점점 더 감명 깊게 들었다. 죽을 뻔한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생하는 영적 생명까지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자기로서는 입이 마르도록 찬양해도 부족할 것 같았다. 무영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면 자기가 좋아하게 된 찬송가부터 부르는 생활습관도 생겼다.

무영은 자기가 치명적인 심장질환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었다. 자기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사가 경고한 대로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는 다른 혈관들이 막히면 또 쓰러질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한 생존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죽음의 불안에서 나를 안심시켜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무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동기는 첫째로, 자기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셨고 둘째로, 앞으로도 그런 구원의 보장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무영은 예수를 믿고부터 만사에 자신이 생겼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 무영은 마음이 든든했다. 그보다도 이 세상에서 무슨 불행한 일이 밀어닥친다 해도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또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도 했으니 무엇을 더 염려하라!

무영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몰랐다. 한국에서 어렵게 살 때 미국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 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미국 본토박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내가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유명한 양복점의 재단사로서 일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 거기다 딸자식 둘이 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둘 다 대학에 들어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학과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건강이 회복되어 차를 몰고 다시금 직장으로 나가는 무영은 너무나 기뻐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의 여생 동안 윤희주의 시와 같이 자기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하고 다짐했다. 아내를 더 사랑해주자. 자식들을 더 사랑해주자. 내 이웃을, 내 친구와 직장동료들을 더 사랑해주자. 이렇게 그는 주위의 모든 인간형제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2012 ICMS(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선교훈련원)를 마치고

올해도 스물세분의 선교사님들과 13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100여분의 강사, 스텝, 단기 팀, 자원 봉사자들과 10여 교회의 참여로 40일간 선교사 훈련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간략하게 간증들을 나눕니다.

"시간 시간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ICMS의 목표인 침과 회복, 새로운 비전을 마음껏 체험하고 갑니다... 선교사 준비뿐만 아니라 안식년 선교사들에게도 귀한 시간으로, 새로운 주님의 힘으로 다음을 위한 길을 열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DKL"

"지난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가족에게 ICMS는 너무나 적당한 때, 적당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집중적 강의와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부담이 있었는데 오히려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터치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식년 선교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조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며 나에게 부족했던 '뽀'를 하게 된 것도 훈련의 큰 성과입니다... MKC"

"... 이 동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

신 사명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며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동산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JHL"

"ICTC의 문을 나서는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제가 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주체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이 40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난 12년간의 미국생활의 모든 피로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침과 안식 속에서 다 이상 제 안에 아픔이나 슬픔의 상처, 쓴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자유함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진실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 한 영, 한 비전 안에서 한 땅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ICTC는 잊지 못할 제 영혼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HWC"

함께 기도해주세요

지면을 빌어 지난 ICMS 훈련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으로 봉사로 섬겨주시는 여러 교회들과 많은 지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센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

랫동안 기도하던 여자 공동 사역실이 훈련 전 공사를 마치게 되어 훈련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었고 분당 안 페인팅 작업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건물마다 duct system에 공기 정화기가 설치되어 위생 환경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센터 이곳저곳에 원근 각처에서 오신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말부터는 몇 분의 헌신으로 숙소마다 30년이 넘는 카페트를 제거하고 바닥을 새로 까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센터의 외적, 내적 변화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ICTC 총회소식

어느덧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ICTC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ICTC 연차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정오

장소: ICTC선교훈련원(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N 1J8 Canada)

주요안건: 1. 2012년 사역 및 결산 보고
2. 2013년 사역 및 예산 승인

ICTC선교훈련원 원장 김광철 드림





모나리자

스킨 케어

Grand Opening Special Price 11월 31일까지

15년 경력의 스킨케어와 바다 경락으로 이름난 실비아 박 원장이 새롭게 '모나리자 스킨케어' 풀 오픈했습니다. AQUA THERAPY 기계를 확보하여 NO 상처, NO 통증으로 당신의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여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u@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정사역 칼럼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실재해 내기가 쉽지 않다. '사랑과 행복 그이상의 결혼이야기'라는 책의 저자 제리 토마스는 "성자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부부가 거룩한 일치를 이뤄가는 것은 세배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보다 결혼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욱 거룩해 지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면 부부의 거룩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내야할까?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부부 공식 1: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환상(밈그림-배우자에 대한 기대)이 있다. 그래서 몇 십 년을 살면서도 내가

기루 같은 이상형을 끊임없이 찾고 있지 모른다. 특히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배우자상은 대부분 자신을 양육했던 사람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 아울러 그런 불평스런 마음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다. 이 세상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심지어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땅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결혼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겠는가. 마치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기초인 것처럼 배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야 그 위에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며 가꿔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 이면에는 하나님 절대주권에 대한 인식부족 있어 불만족 원인은 배우자보다 내 안에 잘못된 그림일수도

혹시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한다. 불만족의 원인은 배우자한테 있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형을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배우자가 창조주의 최상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의외로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 오히려 자신의 이상형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행하다고 여긴다. 우리의 무의식 내지 잠재의식 속에서는 계속 신

이제 자신이 직접 찾았든 혹은 부모나 친척,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든 간에 본인이 결혼한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물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출발하는 기본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데 가장 좋은 선물들을 늘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13면에서 계속) 선교지 단신

두마는 지난해 3월 남부도시 다라에 이어 외곽 지역 최초로 반 아사드 정권 시위가 시작한 곳이다. 아마드는 "두마에만 여러 FSA 분파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 퇴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종파와 연령, 출신배경 등을 초월해 단결했던 시위 초기 상황과 대조된다고 그는 전했다.

아마드는 또 이슬람 강경주의를 표방하는 '리와 알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 및 자금 등을 기반으로 현재 FSA내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리와 알 이슬람은 사리야(이슬람 율법)의 국법화를 주장하는 보수 세력의 하나로 이미 자체적인 종교법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진정한 세력을 색출,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반

면 FSA 내부 이슬람 과격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마드는 전했다.

한 세속주의 성향의 반정부 운동가는 "알-카에다 것발 또는 과격주의자들을 거부하는 반군들은 무기는 고사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뜻하는 이른바 '살라피스트(Salafists)' 사이에서도 이같은 과격주의자들의 일방적인 득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자신을 보수적인 살라피스트라고 소개한 아마드 역시 사리아 율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반정부 세력의 실제 다수는 '자유와 민주주의, 민간 국가를 쫓아 거리로 나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개입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지혜의 외침에 응답하는 삶 [잠8:1-21] 찬490장

본문에 나온 지혜의 외침에 우리는 왜 응답해야 할까? 첫째,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10-11).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지혜로 비유한 것은 그가 지성을 보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보화는 지나가는 그림자지만 본문의 지혜는 현재와 내세에 항상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는 헌신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3).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짐은 그 속에 준비된 풍성함이 클 뿐 아니라 받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며 광방에서 속삭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준비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혜의 수고를 드러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복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누어줍니다.

화 창조자인 지혜 [잠8:22-36] 찬235장

본문은 지혜의 두 방면을 어떻게 의인화시킵니까?(27) 첫째, 지혜를 선재자(先在者)라고 했습니다(22-26). 요한복음 1:1-3절에 나온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22)는 구절이 설명하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함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이며 이 지혜를 순종함은 그리스도

께 순종함입니다. 둘째, 지혜를 창조자라고 했습니다(27-31). 여기 묘사된 지혜는 만물의 기초이며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가장 선하게 만드신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아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골1:15-17). 선재자요 창조자이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창조적 생애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됩시다.

수 지혜의 초청 [잠9:1-18] 찬323장

지혜의 간절한 초청(1-9)과 미련한 계집의 부지런 떠는 유혹(13-18)은 우리 생활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때 지혜자는 바른 선택을 하기위해 실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지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라고 말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집을 짓고 상을 갖추어 정중하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사55:1-2). 거기에 응할 때 준비된 풍성함이 모두 내 것이 돼 가장 아름다운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계3:20). 둘째, 그러나 음녀의 초청

도 대단히 열심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감언이설로 꼬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물레 먹는 때가 맛이 있다"(17)며 하나님 경외보다 더 재미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어쩌다 넘어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 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준 비된 생명과 정수의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세계로 나아가 그 안에 마련된 은혜의 맛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야 합니다.

목 진실 본위 [잠10:1-17] 찬333장

본문은 하나님관계(3, 6-7), 사람관계(1, 4-5, 8-14)와 물질관계(2, 15-17)에 대한 기본 진리를 밝혀줍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갈급한 영혼 위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타락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겸손히 회개와 믿음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입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입은 패망하고(8, 10) 지혜의 입은 생령 샘입니다(11). 명철자의 입(13)과 참 지식을 구하는 입술(14)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탕발림의 말 한마디가 해를 주며 거짓말 부정한 입술을 깨닫는 이사야나 바른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변화했습니다. 진실 본위로 살아갑시다.

금 의인의 말 [잠10:18-32] 찬313장

잠언의 의인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경외하는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먼저 말하기에 언어생활의 특징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첫째,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습니다(18-21). 그것은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말은 악영향을 미치나 의인의 혀는 천을 고과 같아서(20) 누구에게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며 덕을 세웁니다(21). 둘째,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24). 악인은

영적 게으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23). 셋째, 의인의 말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27-32). 의인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27, 28). 의인의 입술을 갖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힘써 지킵시다.

토 정직의 능력 [잠11:1-15] 찬208장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정직은 생명과 같습니다. 진실, 의, 정직은 여호와 경외심의 기초이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방면의 정직을 보여줍니까? 첫째, 물질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므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현금생활이나 정직한 세금보고나 성실한 직장생

활은 모두 이 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문제가 정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정직자는 구원을 받고(8) 정직자의 축원으로 성읍이 잘됩니다(11). 이것은 하나님이 정직자 곧, 의인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기에 정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7797, Fax. (02)325-82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권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31)328-8794-5 군포시 삼곡동 879-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8-8200-5, Fax. (031)328-820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19-215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8-8200-5, Fax. (031)328-8208 김포시 삼곡동 319-215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522-0455, Fax. (02)522-045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양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31)328-8200-5, Fax. (031)328-820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양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031)328-8200-5, Fax. (031)328-820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39-09-877-3282, 39-348-339-1778 VIA DEI GIULIN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성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4:30 [1부] 4층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광관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지역예배: 오후 5: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지역예배: 오후 2:00(매일)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경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지역예배: 오후 2: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경국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30 (프린팅부 포함)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광관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9:00 지역예배: 새벽 7: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경경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2:00(매일)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영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8: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안곡교회  담임목사: 정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매일)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경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경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서경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732-6600-0181, Fax. (02)732-6600-018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4 (134-030)

특/ 별/ 기/ 고

2012년 미국의 대선과 의미



새라킴 사모
(TVNEXT.org 대표)

2012년의 대선은 적어도 미국을 100년 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대역사적인 특별한 대선이 될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영적인 풍성함과 지난 200년의 젓과 꼴이 흐르는 'Dream 국가'로 만드느냐, 아니면 '어둠의 국가, 이슬람국가'로 만드느냐는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누구/ 무엇을 투표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

CCC의 창립자이며 전도책자인 '4영리'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Dr. Bill Bright) 박사는 대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린생명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abortion)는 "하나님말씀"보다 "여성의 선택"을 우상화한 삶입니다.

· 결혼의 의미 -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는 남녀만의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함.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은 창조질서에 먼저 위반됩니다.

·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달라! - 현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슬람법(샤리아 법)이 미국의 헌법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음(Islam - Sharia Law).

투표일, 투표등록마감일 11월 6일(화)이지만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신청하신 분도 우편으

깨어서 기도하며, 바로 알고 주위에 투표할 것을 격려하고, 바로알고 투표하기! 지금은 영적인 눈과 마음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동성결혼합법화가 지난 2년간 미국 역사상 최고로 많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사용한 수백만의 공식적인 살인 또한 계속 늘고 있을 뿐 아니라(Planned Parenthood), 얼마 전에는 민주당 플랫폼(Platform)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정책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들어온 "이슬람" 교육, "이슬람"정책과 법안들입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이슬람의 관계는? 오바마는 정말로 크리스천인가?

오바마가 창조질서와 성경의 기초 원리원칙인 "동성결혼합법"과 "여성선택"에 의한 어떤 낙태"도 강력히 지지/후원하는 것 외에 그는 2010년에 연방 정부에서는 첫 이슬람 Congressman 인 Keith Ellison(미네소타 - 민주당)이 성경 대신에 코란에 손을 얹고 선거하는 것에 대해 아무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2008년 주정부에 모슬렘 정치인으로 나온 Andre Carlson(인디애나 - 민주당)은 두 번째 모슬렘으로 오바마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Carlson은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은 이슬람의 모델인 "madrasas-마드라스를 따라가야만 진정 우수해질 수 있다"라고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바꿀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Andre Carlson은 동성애운동가이기도하며, 이슬람 형제단(brotherhood)인 ICNA/MSA를 지지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오바마는 2012년 초에는 이슬람테러에 의하여 9.11이 터졌던 장소(Ground Zero)에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모스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허락, 세리머니(ceremony)에 축하까지 보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기도의 달 "라마단"을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라마단저녁" 행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복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으로 이슬람사

람이 군복의 총대장으로 앉아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국가"가 아니다"라는 연설이 있는 후, 같은 해 5월에 미국 44대 대통령인 오바마와 이슬람의 최고 중요한 2개의 홀리데이를 기념하는 이슬람Forever 우표가 만들어지고, 오바마의 지지하는 축화가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연설 때 "이슬람을 통하여 세계는 더 아름답고 강하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미국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슬람은 미국의 건립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코란을 그저 "코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코란을 "Holy Koran-거룩한 코란"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바마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물론이 이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털 위험합니다. 또한 도덕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 뒤에서 이슬람신앙을 가지고 미국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그가 이끄는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바마가 정말로 크리스천일까요? 아니면 "비밀스런 이슬람"일까요?

2012년 대선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 내게 투표권이 있든 없든 대선 때까지 금식이 가능하시면 한 끼 금

미국대통령후보의가치관비교

질문 (Question)	바라 오바마 (Barak Obama)	미트 롬니 (Mitt Romney)
Taxpayer funding of Abortion 당신은 낙태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동의	반대
Government funding of Planned Parenthood 당신은 정부가 플랜드 패러던트(세계 최대의 낙태수술기관)를 공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동의	반대
Taxpayer fund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당신은 태아줄기세포연구를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동의	반대
Bin human cloning 당신은 연방 법률로 치료용과 재생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Full repeal of the estate tax 당신은 연방재산세철폐를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Parental choice in education 당신은 교육과 교육선택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State marriage amendments 당신은 주 헌법개정을 통해 자택 결혼을 보호하는 것은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당신은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시행 하는 것은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Marriage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당신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정의한 미국헌법에 대한 결혼보호개정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ENDA - Special employment rights based upon sexual behavior 당신은 성적인 행위에 따른 연방정부의 특별 고용법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동의	반대
Appointment of conservative justices 당신은 헌법을 엄격히 존중하는 이들이 재판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Government control of healthcare 당신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동의	반대
Religious liberty 당신은 정부가 도덕적, 종교적 믿음을 위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제도, 단체, 혹은 개인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반대	동의

출처(원문): <http://downloads.fraxion.org/FF/FF1104.pdf> (공유본: TVNext.org)

식하며 이사야 58장-61장을 읽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 미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0년, 100년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읽히느냐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선택과 그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역사는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더 많은 후보자들의 대답, 그들의 가치관, 민주당과 정화당의 새로운 정당, 발의안(Proposition), 법안들에 대한 설문조사내용과 기독교인들이 검토하여 답한 매우 중요한 대선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선 가이드라인" 또는 "미주 대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시민권자들의 책임들(Duties of a Christian Citizen):

- Pray -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도록 기도하라
- Register to Vote - 유권자 등록을하라 (평생에 한번만 하는것, 또는 주를 바꿨을 때 다시하기)
- Become Informed -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랭기.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금품.
- Get involved - 권여하라 / 개입하라
- VOTE!! - 투표하라! 투표권을기권하는것은책임회피입니다.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투표할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기본 원리원칙적 가치관들이란? 또는 반대할 것들은?

· 생명의 존엄성 -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

로 11월 6일까지 저쪽에서 받도록 불이신기 바랍니다. 아직 안 불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불이세요.

대선 때까지 "투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 미국상원 (Senate) 후보의가치관비교-캘리포니아소속

	다이앤 페인스테인 (Dianne Feinstein)	엘리자베스 엠켄 (Elizabeth Emken)
정당	민주당 (Democratic Party)	공화당 (Republican Party)
낙태 (Abortion)	낙태 찬성	낙태 반대
동성결혼 (Same-Sex Marriage)	동성 결혼 찬성	동성 결혼 반대

책 소개

"행복한 제자도"

저자 장찬영 목사

장찬영 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가 '행복한 제자도'(호산나 출판사/360쪽)를 출간했다.

"제자도는 명사형이 아니며 규격화되고 고정된 어떤 상품이나 물건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장찬영 목사는 "제자도는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으로 흐르는 마치 큰 물줄기 같은,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프롤로그에서 '오늘날 같이 교회가 복음에 목말라 했던 적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오늘날 종교인화 된 전형적인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저자는 "제자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둘째,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례의 길 '제자도'

피력하며 '제자도 삶의 열매는 바로 행복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서는 제자도의 6가지 DNA의 설명과 함께 제 1장 '나는 제자입니다', 제 2장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 3장 '나는 가정을 섬깁니다', 제 4장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 5장 '나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합니다', 제 6장,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

니다'. 제 7장, '나는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립니다', 제 8장 '나는 기도를 배웁니다', 제 9장,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제 10장 '나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제 11장, '나는 영적전쟁에 승리합니다', 제 12장 '나

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제 13장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 14장 '나는 복음을 지킵니다', 제 15장 '나는 복음을 그립니다', 제 16장 '나는 회복을 꿈꿉니다'로 구성돼 있다.

본서를 추천한 정희수 감독은 "제자도는 대강, 비속한, 어렵것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이것을 분별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죽은 교회나, 살아있는 교회나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본서에는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제자도를 이루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읽는 이들의 영적회복을 돕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서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제자도의 향연이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도미, 위클린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저서로는 '커뮤니케이션과 교회', '매스컴시대의 리더십', '전인적 영성과 치유'등 다수가 있다.

▲저자 연락처 : bibisis@gmail.com
책구입: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